

역대하 1 장

1. 솔로몬이 심히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가?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구하여 응답을 받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실제로는 아도니야 제거(왕상 2:25), 아비아달 파면, 추방(왕상 2:26-27), 요압 살해(왕상 2:34), 시므이 제거(왕상 2:46) 등의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이런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이다. 아쉽게도 그의 창대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만이다.

2.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유명하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제사도 있지만 유독 일천번제가 유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또 일부 한국인의 오독(燾 → 番)도 보탬이 되었다. 각설하고 이 일천번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온 회중과 함께, (법궤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회막이(돛제단도) 있는 곳에서: 온 회중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점이다. 이런 행사를 법궤를 안치한 좁은 장막에서 드릴 수는 없었고, 회막과 아울러 돛제단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준비되기 전이었으므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기에 가장 알맞은, 그리고 합법적인 장소였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개인 행사가 아니었다.

3. 옛날 얘기, 다윗이 궤를 옮긴 내용과 브살렐이 돛제단을 지은 내용은 왜 삽입되었는가?

기브온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는 없었지만 제사 드릴 제단은 있었다는 뜻이다.

4. 흔히 한국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출석할 때마다 번호를 붙여가며 헌금을 드리는 일이 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한 번에 드렸다: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의 소치다. 알면서도 그런다면 정말 나쁜 목사다.

5. 솔로몬의 이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기신 일(=내 백성을 다스리는 일, 9)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기도이었기 때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이 기도의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소위 다윗언약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인 셈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했을 것이다.

6.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 지혜(=호크마)를 구하여 얻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지혜롭지 못했을까?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것을 아는 것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았다(왕상 2:6, 9). 지혜로운 자가 더 큰 지혜를 얻게되는 것이다.

7.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땅의 티끌같이(9) 많아졌지?

조그마한 나라에서 많아봤자 얼마나 많을 거라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적어도 솔로몬시대에는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사사시대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이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8.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이 구할만도 한데 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 장수(11): 다윗의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기도 하다. 나라를 세워야 하는 역할을 맡았던 다윗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했지만 세워진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솔로몬에게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12).

9.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지혜를 주셨단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해보자.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다: 그 외에도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었던단다(왕상 4:32).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지혜 중에서도 대단한 지혜임에 틀림없다.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은 그 지혜의 한 예에 불과하고, 시바의 여왕이 놀랐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0.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영화와 번성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왕상 4-5장). 역대기 기자는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내용의 핵심은 병거와 마병과 관련된 것이다(14, 16-17). 온통 산악지대인 이스라엘에 왜 병거와 마병인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많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활용하게 된 마병과 병거가 결국은 무역의 대상이 되었다. 소위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결과적으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

11.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중개무역(16-17)을 함으로 많은 부를 쌓았다. 그러면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말씀(신 17:16)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다(왕상 11:1-13): 외국과의 교류를 마다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정녕 불가능할까? 인생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6절은 여러 역본을 참고해보자. 원문해석이 어려운 모양이다.

역대하 2 장

1.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 왕의 유훈이다. 유훈이 아니라도 나라가 강성해지면 더욱 크고 당당한 건물을 짓는 것이 상식이다. 요즘처럼 행사만 했다면 하면 플랭카드 걸기 좋아하는 솔로몬이었다면 무슨 플랭카드를 내걸었을까?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1, 4): 우리 교단이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를 외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의식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다.

2. 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왜 내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역이다. 선한 목적을 핑계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주 강성한 나라와 옆의 작은 나라와 공정한 무역이 될까? 훗날 약간의 불만이 터진다(왕상 9:12-13).

3. 필요한 것만 요구하면 되지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할 일(4-6)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 글의 형식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대기의 기자가 이스라엘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에 레위인들이 해야 할 내용을 상술하는 것 아닐까? 후람이 들으란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는 내용이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4. 후람(=히람, 왕상 5:1)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기술자와 재목: 벌목공은 오히려 보내주겠다고 했다. 벌목할 나무가 레바논에 있으니!

5.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고 하면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는 말인가?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자들보다 크다는 뜻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다. 출 18:11, 신 10:17, 시 135:5

6.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6).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한 것으로 짓는 성전의 용도가 무엇인가?

분향할 장소가 필요할 뿐: 하나님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잘 인식하고 있기에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생각조차 어려운 것이다. 조그만한 교회를 위해서 수역을 헌금하고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받아주는 교회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까? 솔로몬의 이런 생각이 번지 않았더라면...

7. 이스라엘에도 보석을 다루거나 직조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았다(대상 22:15). 모세 시절에도 탁월한 기술을 지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다(출 36:1). 그런데 왜 이방인을 부르는 걸까?

아마 이 방면(세공, 직조, 조각, 벌목)의 최고 기술이 당대에는 두로에 있었기 때문일 것: 선진국에서 보면 기술자 한 사람이 후진국의 수백명의 기술자보다 나은 것과 같은 이치다. 이스라엘은 오랜 사사 시절을 보내고 이제야 겨우 걸음마를 떼려는 신생국이다. 문화적으로도 별 진전이 없었을 것이다.

8. 솔로몬 시대에는 이미 유다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다. 두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공일까 무역일까?

무역: 일하는 일꾼들에게 삯을 지불하고(10) 왕에게도 따로 사례를 했다(왕상 5:11).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공짜로 부러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다윗이 이 터를 살 때도 충분한 값을 지불한 것(삼하 24:24)과 마찬가지로.

9.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11-12)?

하나님을 잘 알아서 이런 답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외교에는 그 나라의 문화나 신앙을 파악하는 기본이다.

10. 후람(아비)은 어머니가 단 지파 사람이라. 단 지파 출신으로 이런 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모세 시절에 성막의 일은 맡은 오홀리압이 단 지파다(출 38:23). 어쨌든 단 지파 출신인 두로 사람이 일을 맡으면 이스라엘 기술자들과 소통이 잘 되었을 것이다.

11. 두로 왕(후람)이 보낸 사람은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다(13). 4:16절에는 '후람의 아버지'란다. 왕상 7:13에는 '히람'이다. 뭔가 이상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본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후람 선생, 전문가 후람 등이 있다).

원문상으로 '후람아비'다: 후람에 붙은 '아비'를 이름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보느냐 수식어로 볼 것이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명사로 보는 것이 좋겠다.

12. 두로 왕 후람과 솔로몬이 물물교역을 한 셈이다. 무엇을 주고 받았는가?

목재(16)와 식량(15): 레바논에서 벌목한 목재를 바다를 통해서 옴바까지 운송하고 옴바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바다로 목재를 운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가나안의 지형은 육로로 운반하는 것이 유난히 어렵다.

역대하 3 장

1. 모리아 산? 어디선가 많이 들은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던 천사가 있던 곳: 그래서 다윗이 성전터로 삼으려고 오르난(아라우나)에게서 매입한 땅이다. 이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지만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사원이 서 있다.

2.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는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대상 21:15) 도중에 돌이키셔서 재앙을 멈췄다.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다.

3.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6장에도 있다.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자.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다르다. 열왕기는 시기를 강조함으로 출애굽 이후 나라의 성립과 번영을 강조하는 셈이고 역대기는 장소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 언약에 더 관심을 보이는 셈이다.

4. 굳이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가 지은 성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전의 치수가 모세의 장막에 비하면 길이가 꼭 두 배인데 같은 자로 표현해야 비교하기가 쉬운 탓이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성전을 모세의 성막과 관련짓고 싶은 것이다.

5.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4년 쯤에야 건축을 시작하다니?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이라면 시작하다가 말겠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정국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다(참고, 왕상 1-2장) 사람을 선발하고 외국에 필요한 물자를 요청하는데도 적잖게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

6. 건물의 기초를 놓는데 고품이 얼마인가?

60×20규빗=1200규빗이다. 1규빗을 45cm로 잡으면 243m²이고 약 80평이다. 그리 크지 않다. 모세의 장막에 비하면 길이는 꼭 두 배이지만 대단하게 큰 건물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에 일부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주변 부속 건물이 컸어야 한다. 본관의 높이가 60규빗인데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약 60m)이면 너무 높다. 일반적인 경우와 반대다. 그래서 NTV 성경은 이것을 오기로 보고 20규빗으로 고쳤다.

7. 지성소만 600달란트라면 성전 내부를 전부 금으로 입히려면 금이 얼마나 많아야 할까? 이렇게 많은 금이 어디서 났지?

다윗이 준비한 것이 3000달란트, 백성들이 바친 것이 5000달란트였다(대상 29장). 대상 22:14에 따르면 십만 달란트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양이긴한데 캄보디아 왕궁에 온통 보석으로 치장한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아보인다. 국력이 약해지면 그야말로 먹이감이다(왕하 14:14).

8.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건물이 성경에 또 있을까?

종말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계 21:18-21) 결국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것조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성취될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9. 백향목과 잣나무와 종려나무 중에서 성전 건축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종려나무: 건축재료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장식용 형상이었을 뿐이다. 번영,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종려나무 형태가 장식에 많이 쓰였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10. 지성소 안의 두 그룹의 모양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내전을 향해서 나란히 서서(속죄소 위의 그룹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방이 팍 차도록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 편 날개의 길이의 합이 지성소의 폭(길이와 높이가 같다)과 일치한다. 모세가 만든 지성소에는 없던 것이다.

11. 지성소를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 해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이었으니 그림의 떡이다.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휘장 문(14) 문이지만 휘장으로 된 것이다. 지성소의 출입을 막던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찢어지고 만다(마 27:51, 히 10:20).

12. 두 뿔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이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이다. 성전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셈인가?

능력있는 주권자: 능력있는 그 분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다.

13. 모세가 세운 회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것 없으나 속은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점이다.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다. 하나님(예수, 기독교)이 그런 분이시라는 뜻이다.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식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석류: 성전의 기둥머리 장식에 석류가 많이 쓰인 것은 이런 의미 아닐까?

14. 성전 건축의 내용 중에서 지성소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그런데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성소나 성소의 기구들(가령, 향단, 떡상, 촛대 등)이어야 할텐데 두 개의 기둥을 먼저 언급했다: 다른 기구들에 대한 언급은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모세의 성막에 없던 기둥을 먼저 언급한 것은 뜻밖이다. 외부에 있던 기둥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걸까? 아마 무너진 성전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모양이다.

역대하 4 장

1. 제단, 바다, 물두멍, 등잔대, 상을 재료별로 분류해보자.

제단, 바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고, 등잔대, 상은 금으로 만든 것이다. 금으로 만든 기구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놋으로 만든 기구를 먼저 소개했다. 소개 방식이 일관성이 없나보다.

2. 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자.

너비가 성전 폭과 같으니 굉장히 넓은 셈이다. 너비와 폭도 어마어마하지만 높이도 굉장하다. 10규빗이면 2층 건물이다. 성전에 들어오면 거대한 2층 집과 마주치는 셈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치려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에스겔이 말한 탑 모양이었을 것이다(겔 43:13-17). 그러면 실제로 재물을 넣어태우는 공간은 많이 좁아진다.

3. 바다라고 불린 것은 일종의 대야다. 물을 담는 대야를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

크기 때문이다: 대야라고 부르기에 너무 컸기 때문이다. 지름이 거의 5m에 이르는 것을 대야라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4. 바다의 지름이 십 규빗이고 둘레는 삼십규빗 정도였단다(2).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몇 규빗일까?

31.4규빗: 이 질문은 원주율이 얼마냐는 말과 같다. 원주율을 누가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 시절에도 대충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5. 바다 가장자리 아래에 소의 형상이 있었단다(3). 그런데 왕상 7:24에는 소의 형상이 아니라 박의 형상 이란다. 히브리어로는 이 두 단어가 아주 비슷한 글자다. 아마도 한 쪽이 필사과정에 실수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어느 쪽이 정확한 걸까?

아마 박: 아래 쪽에서 바다를 떠받치는 것은 놋쇠 황소 12마리니까(4) 가장자리에는 다른 장식이 어울리지 않을까? 참고로 물두멍의 용량(5)도 차이가 보인다(왕상 7:26에는 2000밧). 열왕기의 기록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6.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인가?

번제물을 씻는 데 쓰임(6): 물두멍의 본래 목적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왕상 30:18-21). 솔로몬이 더 큰 바다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씻게 되자 물두멍의 역할이 보조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7. 성전 마당에 들어서면 접하게 되는 기구들을 순서대로 의미를 생각해보자.

놋단, 바다, 물두멍: 놋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 바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8.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열 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규례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규례대로(7) 되었단 말인가?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과 모양: 원래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일곱 등잔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왕상 25:31-35). 모세의 장막에는 한 개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열 개를 만들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만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보여준다.

9. (떡)상을 열 개 만든 것도 등잔대를 열 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같은 내전에 있으면서 늘어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금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사르는 곳은 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풍성하게 늘어난 모습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과 영생의 양식은 10배로 늘어난 셈이다.

10.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이다. 아마 빠른 속도로 쏟아붓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대접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만든 금대접의 용도는 무엇일까?

추정하자면 피를 뿌리거나(레 1:5)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레 23:18) 일 것이다.

11. 성전 마당에 있는 기구들은 놋으로 만들었지만 성전 내부의 기구는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 금의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여긴 걸까?

변함없음: 아름답고 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이시다.

12. 모세의 성막과 비교하면 등잔대나 상의 개수가 많이 늘었다. 그 외에 늘어난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둘(9): 성막에는 둘이 하나밖에 없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제사장의 둘이 있고 또 다른 큰 둘이 있었다. 아마 일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마당이 많이 넓어졌을 것이다.

13.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는데 이 기둥과 ‘공’, ‘그물’ ‘석류’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12-13)?

공은 기둥머리의 형태, 그물은 기둥머리의 아래 부분 장식(왕상 7:17), 석류도 기둥머리의 장식이다.

14. 후람이 각종 기구를 만들었는데 후람의 아버지가 왜 등장하는가(16)?

후람의 본명이 후람아비인데 이걸 해석해버린 탓이다(2장 11번 참조). 2:13절에서는 이것을 ‘내 아버지 후람’이라고 번역했다. 둘 다 후람아비라고 음역하는 것이 좋겠다.

역대하 5 장

1. 전을 다 지었으면 성전기구를 먼저 소개해야지 왜 곳간 얘기가 먼저 나올까?
 곳간에 각종 기물을 들여놓는 것이 성전을 완공하는 셈이다. 성전을 짓는 데에 쓰고 남은 재료나 보조 기구를 들여놓는 것은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을 만드는 셈이다. 남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안 된다. 곳간에 잘 보관해두었다가 성전에 쓸 일이 있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2. 이제 여호와와 언약궤를 완공된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시킬 차례이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 성(시온 성):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두 언덕의 정상 부분이 연결된 성읍이었다. 다윗 왕의 시절에는 아래 쪽 언덕 정상에만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솔로몬이 위 부분의 언덕까지 성을 확장하였고 여기에 성전을 세웠다. 나중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온성이라고 부른다. 언약궤가 다윗 성에 있을 동안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보면 핵심이 빠진 회막이었던 셈이다.
3. 겨우 궤 하나를 옮기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소집하는가(2)?
 궤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셈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하는 일이다(3).
4. 장로, 족장들이 다 모였으면 누가 궤를 매야 하는가?
레위인들(4): 직책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직이 중요하다. 레위가 높은 직책이나 신분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자.
5. 궤를 옮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막이나 장막 안의 거룩한 기구를 왜 옮기나? 솔로몬이 새로 만들지 않았는가?
 새로 만들었다고 이전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궤는 다윗성에 옮겨져 있었지만(삼하 6:12-15) 나머지 기구는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다(대상 21:29). 성소에 새로 만든 것을 배치했다면 이전의 것은 성전의 다른 방에 따로 보관했을 것이다.
6. 법궤를 지성소에 메어 들이기 전에 무슨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제사를 드린 것처럼 했을 터이고 더구나 지성소에 들이기 전에 온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잔치를 벌인 셈이다.
7. 채 끝이 본전(성소)에서 보인다는 말은 지성소가 채의 길이보다 짧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채를 빼서 세워두든지 하지 않고?
 일단 채를 빼는 것은 안된다. 원래 법궤는 채를 끼워서 운반하는 형태이지만 빼지 말라고 하셨다(출 25:15). 아마도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떼낼 채비를 하고 있으라는 의미 아닐까?
8.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다. 금으로 된 그룹의 날개 아래 모셔진 금으로 된 상자라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금으로 된 상자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참된 교회일 것이다. 온통 금으로 치장된 상자 속에 돌판이라? 동시에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이기도 하다(출 25:22).
9. 어느 이단의 강사가 천사는 네 개의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강의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본문의 그룹을 group로 읽었다. 히브리어로 캐롬(복수형태는 캐루빔)으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천사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인가?
에덴동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창 3:24).
10. 원래 이 법궤에는 두 돌판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만나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른다. 체험(만나=양식, 싹난 지팡이=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 아닐까? 만나 향아리(출 16:33-34 여호와 앞, 증거판 앞에)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민 17:10 증거궤 앞에)는 법궤 앞에 보관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지팡이는 궤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 (히 9:4 ↔ 출 25:16, 40:20, 신 10:5).
11. 9절에서 말하는 오늘날까지는 언제를 가리키는 말일까? 법궤가 소실된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때이다(BC 586). 최소한 그 이전이라는 말인데?
 열왕기 8:8절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열왕기가 기록되던 시대(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를 의미한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던 때가 아니다.
12. 제사장들은 반열에 따라 직무를 나누었다. 이 때에는 왜 반열을 무시했을까?
모든 제사장이 함께 봉사했다는 뜻이다: 성전봉헌 의식이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3.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다(12). 요즈음 말로 하면 이들의 직책은?

찬양대 지휘자: 단순한 가수나 찬양대원이 아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대상 15:19, 25:1-6)

14.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면 노래하는 자는 몇 명이었을까?

대상 23:5절에 보면 찬양을 위한 레위인의 총수는 4,000명이었다: 아마 거의 다 함께 찬양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전체 찬양대의 조직은 1명의 왕 밑에 3명의 지휘자와 이들을 포함한 24명의 두목, 288명의 교수, 4,000명의 대원이 있었다.

15. 여호와의 전에 웬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단순한 상징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면 인간이 견딜 수 없기에 연막을 치고 임재하신 것이다(출 40:34-35).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제는 나타나고 싶어도, 손을 잡고 싶어도, 나타날 수도 없고 손을 내릴 수도 없다. 범죄한 이후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스런 모습을 가린 채 옆에 계시다는 티만 내신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에 계신다. 흑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인간이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역으로 보면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 죽음이나 다름 없는 존재로 추락했는지 잘 알 수 있다. 하나님 곁에 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16.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전을 가득 덮은 구름은 예전에도 있었다. 언제? 누구 때?

모세의 성막 봉헌 때(출 40:34-35): 성막 봉헌 때 여호와의 영광스런 임재를 보여주셨던 분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동일한 모습을 보이셨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로 인정하셨다는 뜻이다.

역대하 6 장

1. 여호와께서 언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할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바디랭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시내산에서 그랬고(출 19:9) 회막에 임재하실 때도 항상 구름 가운데 계셨다(출 40:34). 인생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숨어계실 수밖에 없다(사 45:15).

2. 캄캄한 데 계시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형편이 좀 뚫다. 어떻게?

이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계시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철없는 우리의 시각일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성전인를 하나님께서 거할만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도 안다(18). 정성이라도 받아 주십사 하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3. 솔로몬은 누가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가?

그의 손으로(4) 자신이 아무리 수고를 했다고 해도 도구일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다고 말한다. 최선의 수고를 다 하고도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종의 자세를 지닌 것이다.

4. 7년에 걸쳐 엄청난 수고와 정성을 다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장소를 선택한 이도 하나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는 다윗 왕을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6), 성전건축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삼하 7:14-17),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10, 15)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10, 15) 지어졌다.

5.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해도 하나님께 어울리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시만한 곳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이런 집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름이라도 두려고(5, 8)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상징으로 쓰시겠다는 뜻이다.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셨지만 후대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건물만 소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짓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6. 5절과 6절은 각각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가?

5절은 사사시대, 6절은 다윗 왕의 시대: 한 곳을 택하여 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은 모세에게(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동안 이루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는다.

7.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7). 이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과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잘 쓴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준비를 했다(대상 22:2-5, 29:2-9).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도, 의지도 있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리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려주었을 뿐이다.

8. 황금으로 된 집을 완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모셔와야지?

언약을 놓은 궤를 안치했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니 하나님을 모셔온 것이나 다름없다.

9. 원래 성막에는 없던 것을 솔로몬이 만든 것이 무엇인가?

대(13): 이교 단상이다. 제단 앞에 세웠던 모양이다.

10.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말인가, 덜 이루셨다는 말인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15),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다(16, 17): 위가 영원하리란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니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11.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다(8). 다윗이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삼하 7:5-13, 대상 22:8에 있다. 왕상 5:3-4도 참고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스라엘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성전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님은 정작 성전의 양식까지 소상히 계시하셨기 때문이다(대상 28:11-19). 단순히 피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었다.

12. 하나님께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16, 17) 이래도 되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점만 분명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분의 말씀과 그 분의 뜻에 따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먼저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14-15)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며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가장 바른 기도다.

13.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15). 이 말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시는 분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온 마음으로 행하는 중(14), 자기 길을 삼가 다윗처럼 행하면(16):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인간의 작은 헌신과 조화를 이룬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다(고전 3:9).

14.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18-42)는 너무 길지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 기도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18, 21)와, 그 분의 말씀에 근거한(20)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전제가 더 중요하다. 대단한 성전을 건축하고도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분이 아니다?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잘 했죠?’ 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심정과 다른 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스테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었다(행 7:47-50). 그러나 성전모독의 원조는 바로 솔로몬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초라한 오두막과 다를 바가 없다.

15.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므로 굳이 특정한 곳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굳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20). 이름을 두겠다는 것은 그 곳에 계시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분명히 하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21)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분의 눈이 주야로 그 곳을 향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성전이 성전인 것이 성전 때문이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나 분명하다. 온 세상 어디라도 계시는 분이 한 곳을 지정하셔서 거기에서 인간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다. 이 곳이 바로 교회이다.

16.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21, 23, 25, 30, 33, 35, 39)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성전을 지었는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다: 성전 자체를 결코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께 호소, 회개하기 위한 장소로 여겼을 뿐이다. 또, 하늘은 어디인가? 단순한 공간개념이 아니라 땅을 초월한 개념으로 쓰였을 뿐이다.

17. 솔로몬의 긴 간구 중에 18-21은 총론 격이고, 22-42은 각론인 셈이다. 각론은 몇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7개: 22-23(맹세에 대하여), 24-25(적국에 패하여 돌이켰을 때), 26-27(가뭄), 28-31(온갖 재앙들), 32-33(이방인들을 위하여), 34-35(전쟁터에서의 기도), 36-42(또로된 곳에서의 기도)

18. 하나님께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달라는 것(22-23)은 무슨 의미인가?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명확히 가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맡길 터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대로 심판해 달라(23)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된다. ‘맹세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공의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된다.

19. 전쟁에서 지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레 26:17, 신 28:25). 외견상 힘이 없어서, 통치자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 원인이다. 그럴 경우 솔로몬의 회복 방법은 무엇인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24): 성도들도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외견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법이다.

20. 지금 솔로몬은 한창 잘 나가는 중이다. 나라도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한 때에 어떻게 전쟁에 패했을 경우를 말할 수 있는가(24)?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나라의 융성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레 26:17, 신 28:25).

21. 가뭄의 원인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렇다(26-27).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주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뭄을 만나지 않는 비결이다.

22. 이스라엘이 항상 주를 경외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가?

과 사람의 (마음의) 행위대로 갚으셔야(30): 문맥상 이 말씀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유하심을 구하는 말씀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마음으로 회개하거든 살려주세요!’ 하는 간구이다.

23.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라고 기도하는 것(32-33)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왜 그런가?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에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한 선지자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영역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다. 단순한 통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24. 마지막 두 기도(34-35, 36-42)의 공통된 핵심은 무엇일까?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34, 38): 전쟁으로 말미암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올 수 없더라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30:1-4절을 근거로 한 것이다.

25. 성전을 짓고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범죄한 경우에도 돌이키거든 용서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솔로몬의 형편은 이런 기도를 할만큼 어려운 경우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보는 인간관은 어떠한가?

전적 부패(36):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는 구절은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12)를 들 수 있지만 솔로몬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26. 37절의 '범죄하다'의 원어는 *af:j:*(하타)인데 '목표에서 빗나가다'는 뜻이고, '패역'은 *hw:i:*(아바)로 '어그러지고 구부러짐'을, '악을 지음'은 *[vr:]*(라샤)'는 '악하게 행동함'이다. 죄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가?

작은 잘못에서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잘못으로 깊어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간다고 가는 것이 어그러지다가 결국은 고의적인 범죄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다.

27. 기도는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회개, 찬양, 간구, 요청, 중보, 서원, 작정... 솔로몬의 이 기도(14-42)는 어떤 성격의 기도인가?

중보기도: 왕으로서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께 중재하는 셈이다. 본문에 사용된 '기도'는 '중재'; '간구'는 '호의를 간청함(불쌍히 여겨달라)'을 뜻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대하 7: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이다.

역대하 7 장

1. 기도를 드렸는데 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을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다: 성전을 받으셨고, 그 성전에서, 혹은 그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뜻이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표나게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레 9:23-24),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대상 21:26), 훗날 엘리야가 기도할 때(왕상 18:38),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행 2:3) 이런 일이 생긴다.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운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인 셈이다.

2.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현상일까?

구름이 성전을 덮고 있었다(5:14, 출 40:35)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없으니 상징으로 구름으로 성전을 덮으셨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불과 구름(3):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과 구름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여기서도 제단에는 불로, 성전에는 구름으로 임하셨다.

4. 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다 불살랐는데(1) 또 제사를 드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른 제물은 언약궤를 안치시킨 것에 대한 제물이다. 이제는 화목제다(왕상 8:63).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제물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축제였다. 2주간의 축제이니 소가 22,000마리, 양이 120,000마리를 소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5. 놋 제단이 번제물을 감당할 수 없었단다. 제물이 너무 많은 탓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임시로 여호와와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7) 제사지내는 장소로 사용했다: 성경에서 가끔은 본래의 규례를 벗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기도 했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그렇다(마 19:8). 규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구현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6.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하였고 연이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단다. 한꺼번에 14일을 지켰다고 하지 왜 이렇게 말할까?

다른 절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7월 15일부터 22일은 수장절(장막절, 초막절)이다(레 23:34). 그러니까 낙성식은 그전 1주일, 즉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렸겠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7.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일까(8)? 창 15:18절을 참고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맛 어귀는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오론테스 강)를 가리킨다. 애굽 강은 흔히 애굽 시내(수 15:4, 민 34:5)라고도 불리던 작은 강이다. 나일 강은 아니다.

8. 성전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가?

솔로몬의 뜻대로(11): 그러나 솔로몬의 뜻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물려받은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준비시켰다(대상 28:11-19).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 본문은 솔로몬이 이루고자 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

9.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보면(6:19-42)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기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전에서...’, 혹은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라는가?

제사하는 곳(12): 제사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려면 제사부터 드려야 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강조점이 다를 뿐 결국은 같은 말이다.

10. 13-16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어디서 보았더라?

솔로몬의 기도예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다(13절 ← 6:26, 28, 14절 ← 6:29, 16절 ← 6:20).

11. 자연재해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해야(=내 얼굴을 찾으면)한다: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자연현상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옳바르다.

12. 솔로몬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지 않느냐고 기도했다(6:20).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름 뿐만 아니라 눈과 마음까지 두겠다고 하셨다(16):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것이다(눅 11:13).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얻었다. 친구따라 교회에 멋모르고 왔다가 영생을 얻은 것은 보통 횡재가 아니다.

13.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 하나님은 그 성전에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하셨다. 그 성전이 사라진 오늘날에는 어디에 두실까?

성도들에게(고전 3:16, 6:19)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분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다. 영광으로 알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14.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다윗처럼 행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잘 지켰다(17, 왕상 9:4)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이 순종하였으며(삼하 12:23)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자신의 뜻을 펴는 사람이었다(삼상 26:9-11).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다(8:15).

15. 솔로몬에게는 몇 개의 길이 있는가?

길은 하나다: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만이 길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는 것은 길이 아니다(20-22).

16.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왕위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끊어지지 않았는가?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린 탓이긴 하지만?

나라는 망하고 왕은 사라졌지만 다윗의 위는 계속 이어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어진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다. 솔로몬과 그 이후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육적인 이스라엘도 끝까지 보존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17. 성전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다(20)? 하나님께서 스스로 조롱받는 일을 하십니까?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스스로 욕을 먹는 일을 서슴없이 하실 수 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불레셋에 잡혀가시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주로 목사 장로)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가!

역대하 8 장

1.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 궁궐을 짓는 데에는 13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하나님에게 성의가 좀 부족한가?

아니다: 성전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닌데다,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준비기간은 공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전 기초를 쌓았을 때부터 7년이다.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은 자세한 반면에 자기 궁궐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다. 성의부족이 아니다.

2. 후람이 성읍을 왜 되돌려 주었을까?

성전 공사의 수고비조로 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왕상 9:11-13)! 후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했을 것이다. 20년이나 물자와 사람을 대주었는데 쓸모도 없는 땅을 주었다고! 물론 20년 동안 아무런 댓가 없이 물자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두로 왕은 우호적으로 무역을 한 셈이고, 솔로몬은 값을 짜게 매고 셈이다. 국가 간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 힘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법이다. 힘이 있는 쪽에서 섭섭하게 하기 마련이다. 후람(히람)이 참을 수밖에!

3. 평화의 왕 솔로몬은 전쟁을 한 기록이 거의 없다. 유일한 기록이 본문에 나오는 하맛소바를 점령한 것이다. 다윗 왕 때에는 동맹관계였는데(삼상 8:9-10, 말이 좋아 동맹관계지 조공을 바치는 관계) 솔로몬 때에 관계가 깨어진 모양이다. 다드몰과 하맛은 근처에 있는 도성이었을 것이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대로 확장된 국경지역을 가리키는데 어느 쪽 국경일까?

북쪽 국경: 이스라엘의 최대로 확장된 영토를 가리킬 때 하맛에서부터 애굽 강까지(7:8) 라는 표현을 쓰는 점을 참고하자. 하맛은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오론텐스 강)가 흐르는 지역을 가리킨다.

4. 물자를 비축하기 위한 국고성을 많이 건축한 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수비용이다. 왜 수비용 성읍을 많이 건축했을까?

대부분의 대적이 점령되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솔로몬의 일이었다.

5.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성읍이 나뉘어 있어서 윗 벰호론과 아랫 벰호론이라고 불렀다. 유다의 서북부 지역이다. 여기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이유는 어느 민족에 대한 대비책일까?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서쪽 해변가에 거주하던 족속은?

블레셋: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힌 민족이다. 왜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린다.

6. 솔로몬이 자기의 희망대로 성전과 자기의 궁궐과 수많은 국고성을 건축했다.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을까?

좀 무리가 되었던 모양이다. 훗날 나라가 쪼개질 때 이 일로 인해 고통 받았음을 언급한다(10:4). 노예처럼 부린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썼음에도(9) 그렇다.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통치가 다소 강압적이었다는 말이다.

7.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아내다. 그러면 왕비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선민의식에 따라 왕비라도 이방인이어서: 그래서 왕비이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던 시절의 솔로몬은 이랬다.

8.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인가?

여호와와 궤가 이른 곳, 즉 다윗 성(=다윗의 왕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바로의 딸이 임시로 머무르던 곳이 여호와와 궤가 있던 다윗 성이었다. 좁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궤는 새로 지은 성전으로, 바로의 딸은 새로 지은 왕궁으로!

9.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모세의 명령도 따르고(13) 다윗의 규례도(14) 따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충실하고 그 율법을 따라 다윗이 만들어둔 제반 규례(시행 세칙인 셈)를 준수한 것이다. 그러니 제사장들도 솔로몬의 명에 따른다. 보기 좋다.

10.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인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13): 무교절은 유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절기가 아니라 붙어있는 절기다. 칠칠절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11. 성전 공사가 끝난 것은 벌써인데(5:1, 7:11) 왜 여기서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할까?

성전 건물은 하드웨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고서야 성전 공사 결점 없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성전이다.

12.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은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치면 어디쯤인가?

동남쪽 끝: 홍해를 거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13. 후람은 성전을 지을 때 목재를 보내서 돕더니 이제는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냈단다. 후람이 어느 나라 왕이지?

두로: 페니키아의 중심도시로 해상 왕국이다. 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기에 고문관들을 보내서 해양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을 가르쳤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배로 무역을 해서 융성하기는 이때 뿐이다. 원래 바다와는 별 상관이 없었다.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는 판이니!

14. 오빌이 어디이기에 금을 이렇게 많이 실어왔을까?

아카바만과 홍해를 통해서 바다로 나갔으니 가능한 곳은 인도, 아라비아 남부, 아프리카 동부해안 어디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 중에서 금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디지? 여하튼 오빌의 금은 질이 좋았던 모양이다(욥 22:34, 28:16, 시 45:9, 사 13:12). 한번 출항하면 3년이 걸린 것(9:1, 왕상 10:22)과 여호사밧이 선박을 건조하여 오빌로 가려고 했다가 실패한 점을(왕상 22:48) 고려하면 숙련된 사공 없이는 갈 수 없는 먼 곳이었을 것이다.

15. 본문에 나타난 기록을 열왕기와 비교해보면 기록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잘못을 그대로 기록(왕상 4:1-19, 7:1-12, 11:1-8, 9-40)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잘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하맛소바와 벤호론을 정복한 내용(3-5)은 열왕기에는 없는 것이다. 바로의 딸에 대한 기록이나 후람이 돌려준 땅의 기록도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다를까?

열왕기는 솔로몬의 통치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다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솔로몬이나 다윗의 잘못된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료를 달리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보다 사관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역대하 9 장

1. 학기초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시험해보기도 한다. 이 때 실력 없는 것으로 찍히면 일년 내내 무시를 당한다. 스바 여왕은 왜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을까?

일종의 외교사절 겸 경제사절단: 스바왕국은 지금의 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무역의 중심지였다. 요즈음의 두바이 격이다. 솔로몬이 예시온 개벨 항구를 통하여 무역이 활발해지면 교역지대가 중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교와 경제적인 목적으로 찾아왔을 것이다.

2. 스바 여왕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그런가?

국방이나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더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튼튼한 국방이나 경제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질 것이다.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어렵없는 소리다.

3. 스바 여왕의 이런 태도를 누가 칭찬했을까?

예수님께서 남방여왕이 지혜를 구하는 태도로 본 받으라(마 12:42): 스바 여왕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말한다. 지혜 중의 최고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4. 음식물, 좌석, 도열, 복장, 총계가 왜 황홀하지?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정신이 없다? 이해가 안 되네?

같은 것이라도 솜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작품에는 차이가 난다. 이 모든 것에 솔로몬의 지혜가 묻어 있어서 시바 여왕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움이나 독특함이 있었을 것이다.

5.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시바여왕이 실제로 와서 보니 소문보다 실물이 더 낫더라. 왜 솔로몬의 이야기는 과장되지 않았을까?

과장될 여지가 없을만큼 대단했던 것 아닐까? 좀 어설피거나 못한 구석이 있어야 과장이 되는 법인데 완벽하면 과장할 수가 없다. 그만큼 완벽한 지혜의 소유자였다.

6. 날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7, 잠 8:34)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예가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마왔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발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보면 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설교와 상식이나 윤리, 시사만평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설교를 의식하고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가르침(마 12:42)에 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7.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시바 여왕이 어떻게 알지(8)?

국민방문을 하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 풍습, 관습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다. 시바여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찾아왔다가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인 역사를 본 셈이다.

8. 시바여왕이 한 말 중에 이방인의 왕의 입장에서 가장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절대 권력을 지닌 이방의 왕에게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 절대 금기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한다. 말은 그렇다. 전제군주제 시절에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9.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감격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보물을 그냥 드려(9)?

솔로몬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또 주었을 것(12): 이런 걸 조공무역이라던가?

10. 후람의 신하들이 왜 등장하지?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기 위한 고문관으로 와서 솔로몬의 휘하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후람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11. 금과 보석을 실어오는 배에 왜 나무를 실어오는가?

백단목은 금 못지 않게 귀한 나무다: 약기를 만드는 나무는 최상급의 나무다. 단단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 나무로 왕궁의 총대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급재료를 썼는가! 탁구라켓도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만든 것이 있더라!

12. 큰 방패 하나를 만드는 데에 600세겔의 금이 들었단다. 1세겔을 11.4g으로 계산하면 600세겔은 약 7kg이다. 조그마한 아령 하나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금을 입혔다. 덮어 쉬운 금의 무게만 그렇다. '쳐서 늘인 금'이란 얇게 편 금을 가리킨다. 성전 벽을 만드는 방식과 같았을 것이다.

13. 큰 방패 전체와 작은 방패 전체를 비교하면 금이 어느 쪽에 더 들어갔을까?

큰 방패: 큰 방패에는 12만 세겔, 즉 40달란트가 들었고, 작은 방패는 900마네, 즉 45000세겔, 즉 15달란트가 들었다. 작은 방패는 큰 방패의 1/4이었다(600세겔 대 150세겔).

14. 레바논 나무 궁이라니?

자신의 궁을 가리킨다: 주재료가 레바논 백향목이었기 때문이다(왕상 7:2-5).

15. 솔로몬의 사치가 어느 정도인가?

금으로 방패를 500개나 만들었다(16) 금 방패는 장식용(작은 방패)이거나 의전용(큰 방패)일 것이다.

전무후무하게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다(17) 원래 이스라엘에는 보좌가 없었다. 유목민들에게는 의자 문화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으로 보좌를 만든 셈이다. 이걸 사치라고 보아야 하나 아니면 부귀와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수많은 외국 사절에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일까(사업가들처럼)?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20) 페르시아 이전에는 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단다(로마 역사의 대부분 은 은본위제였다). 얼마나 금이 흔했으면 그랬을까?

16. 다시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는 지명으로, 은이 많이 나는 지중해 건너 어떤 지역일 것이라는 추정이다(요나가 도망가려던 곳). 다른 하나는 제련소의 물품을 실어나는 배를 가리킨다는 추정이다.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 선단이 파선한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 해준다(왕상 22:48). 각설하고 오빌의 선단이 주로 금과 보석을 실어왔다면 다시스 선단은 금과 은 외에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왜 이렇게 다를까?

무역의 대상지가 달랐다는 말이다. 오빌의 선단은 아라비아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면 다시스 선단은 인도쪽으로 갔던 모양이다.

17.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는데 이 천하는 어디를 말하는가?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26) 솔로몬은 황제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창 15:18, 출 23:31).

18.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찾아 왔단다(24).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열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물을 바치려고(=24절 끝, 해마다 정한 수) 예전에 엄청난 재물을 굶어모은 대통령이 있었다. 경제계 인사들이 대통령과 식사하려면 거액을 가지고 갔단다. 밥 한끼 얻어먹는데 수억이 들었단다. 밥 먹으려간 걸까? 그 돈은 밥값일까?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국들에게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19. 9장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한 기록으로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걱정스럽다.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이 있다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처럼. 무슨 걱정이 되는가?

아름다운 여왕의 등장, 너무 화려하다는 점, 말을 많이 두는 것: 돈 많고 시간이 있을 때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던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신 8:17-18)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신 17:16)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솔로몬이 탈이 날 모양이다.

20. 역대기 저자가 여기에 기록한 것 외에 다른 행적은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단다(29).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솔로몬의 말년에 저지른 실정(왕상 11장) 국제 결혼, 우상 숭배, 그로 인한 징벌에 대한 내용은 생략했다.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렸다.

역대하 10 장

1. 나라의 분열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닌 증거가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겔에 모였다(1): 르호보암이 여기서 민심을 잃은 것이 화근이다. 비록 솔로몬의 잘못과 아히야의 예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솔로몬의 잘못일뿐, 르호보암의 잘못이 경감되지 않는다.

2.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이유는 뭘까?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조용하게 기다리지 않고 뭔가 일을 저질렀기 때문

3.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솔로몬 때에 크든 작든 반기를 든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대신하여 왕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아히야가 해준 말이 있으니 용기를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히야가 한 말을 다 기억해야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일부만 기억하다니...

4.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한 말은 반역이 아니고 권의 사항이다. 솔로몬 왕이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는 말이 맞는가?

성전, 왕궁, 그리고 수 많은 국고성과 요새를 지었다. 평화와 부를 누린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다. 지혜롭고 유능한 왕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무리 평화로운 나라라도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왕인가 보다.

5.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권고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힘있는 자는 힘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원로들의 권고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지는 천국의 원리와 닮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들(삿 2:7)의 권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모양이더라.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모한 심리는 도대체 웬 일?

6. 솔로몬이 정말 가혹 채찍으로 백성을 쳤을까?

젊은 신하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 원로들의 충고를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도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 보다는 겉으로 들어난 모습만 보고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속 마음은 배우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배운 탓이라고 할까?

7.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뺨, 과장, 허세: 본 때를 보여주라, 초장부터 군기를 확실하게 잡으라는 말이다. 이런 방식은 잘 잡히면 다행이지만 잘못 고드렸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위험이 있다. 전갈 채찍이란 말도 마찬가지다. 가족보다는 살아있는 전갈이 더 무서운이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말을 거칠게 해야 먹혀드니까!

8.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으니(15) 르호보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처럼 쓰시지 않는다: 이 사건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분열의 조짐은 솔로몬의 통치 후반에 있었지만 후대로 미루어진 것도 르호보암같은 적절한(?) 사람이 등장하기를 기다린 것이다.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르호보암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라가 이렇게 나뉘게 된 데에 르호보암의 그릇된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9.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고 했다.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온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다. 그 의미를 안다면 르호보암이 어리석었다고 해도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떠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역대기에서는 더 이상 복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에서가 야곱의 그늘에 거하고, 함이나 야벳의 후손의 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목사가 싫어도 하나님을 떠나선 안 된다.

10.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17)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다 지파가 아니면서 유다 지파의 경내에 거하던 다른 지파 사람들: 심정적으로는 자기 지파와 동행하고 싶었겠지만 삶의 근거가 여기에 있으니 할 수 없이 따랐을 것이다. 정치적 소신보다는 삶의 기반 때문이다. 그래도 복이다.

11. 르호보암이 역꾼의 감독을 보낸 것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탓이다. 평소에 이 감독관을 통해서 백성들을 관리했으니 별 생각없이 보냈다가 일이 커진 것이다. 왜 보냈을까?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나?

16절의 장막이 자기들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위해서 모여있던 임시 장막이었던 모양이다. 르호보암이 아직 세겔에 머물로 있던 것으로 보아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해산하지 않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협상을 위해서 보냈던 모양이다.

12. 권의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역인가? 아니면 새로운 국가 건설인가?

배반(19): 비록 왕의 잘못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왕조를 버린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역대기가 다윗의 왕위를 정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배반한 것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같은 맥락이다.

역대하 11 장

1. 두 지파에서 18만 명이라 해도 10지파와 싸우면 이기기도 쉽지 않지만 이겨봐야 실익이 없다. 그래도 끝내 출전할까?

했다(4): 내전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대로 두었으면 서로 물고물리는 끔찍한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감정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위험을 스스로 피해가기는 어려운 모양이더라.

2. 왕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아도 될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왕이 혼자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왕의 통치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선지자가 막아주었다. 적어도 이런 선지자의 역할이 살아있어야 신정국가라고 할 것이다. 비록 자신의 판단착오로 10지파를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다행이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남 유다는 그래도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나갔다.

3. 1절과 3절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른가?

1절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를 일컫는 말이고 3절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일컫는 말이다(12:1, 15:17, 21:4, 28:19, 27). 비록 나라가 갈라졌어도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4.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동족을 힘으로라도 제압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떤가?

잘난 것 없는 자녀들의 싸움일 뿐: 누가 이기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득이 되지 않는다.

5.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 중에 알만한 성읍이 있는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남쪽 7km 떨어진 다윗의 고향

아돔람: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거점으로 삼았던 국경지대(유다가 가출했던 곳)

가드: 블레셋의 중심 도시 다섯 중의 하나로 골리앗의 고향

십: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하던 성읍, 헤브론의 동남쪽 6km

라기스: 예루살렘 남서쪽 45km(세펠라 지역)에 있는 교통, 국방의 요충지

아세가: 라기스 동북쪽 16km(예루살렘 남쪽 27km), 군사적 요충지로 패주한 가나안 다섯 왕의 종착지, 엘라 골짜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곳이기도 하다(삼상 17:1).

소라: 삼손의 고향

아얄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머물라고 하던 곳

헤브론: 예루살렘 남쪽 30km, 남부 고지대의 오래 된 도시,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이 있다.

공통점: 알만한 곳은 대체로 전투가 많이 벌어진 곳이니 국방에 중요한 도시들이었다(5). 주로 남서쪽에 있다는 것은 애굽의 침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르호보암이 최소한 유다와 베냐민 지역만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제대로 다스렸다.

6. 레위 사람들이 고향과 산업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한 것: 38선이 그어지고 신앙인들이 복한을 탈출하던 장면이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갔던 청교도들이 연상된다. 레위인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 많이 동행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 위한 외유다. 복되다.

7. 고향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이들의 열심이 평생 이어지지는 않았다. 왜 삼년 밖에 가지 않는 걸까?

작심삼일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갔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열심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열심이 식어버리자 애굽 왕 시삭이 침입하여(12:2) 수난을 당하게 된다.

8.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

왕위계승을 무난하게 마친 것: 일찌감치 후계자를 세우고 다른 형제들과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여 다윗의 위를 잘 보전한 것이다. 많은 처첩을 두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9.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 60명을 두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이 일에 대해서 역대기는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신 17:17에 따르면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다.

역대하 12 장

1.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은 초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탓이다. 덕분에 신실한 백성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걸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는데 왜 하나님을 버릴까?

자신을 믿게 된 것, 자만심의 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할 때 제일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신 8:12-18). 잘 살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 이 땅에 고난이 그치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2. 하나님을 버리면 견고하게 쌓았던 성읍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시 127:1). 초기에 남서쪽에 튼튼한 성읍을 많이 세운 것이 애굽의 침입을 막으려던 것인데 맥없이 무너진 모양이다. 튼튼한 성읍을 건설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외적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안 되면 백악이 무익하다.

3.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시삭이 쳐들어 올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교인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 범사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고생을 덜 한다.

4.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방백들이 겸비한 탓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은 막아주셨다(7절의 '조금 구원', 12). 시삭에게 점령은 당했지만 종노릇하는 길로 목숨은 부지하게 된 셈이다.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내 종이 될래, 시삭의 종이 될래?' 하시는 셈이다.

5. 시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쇠락하였는가?

금 방패가 놋 방패로 바뀌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질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음을 잘 보여준다. 솔로몬의 번심,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것이다.

6. 르호보암이 심기일전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명맥을 이어갔다. 초지일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어머니 암몬 여인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이방여인을 불러들인 솔로몬의 잘못이네! 이방인과 혼인을 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가 작지 않다.

역대하 13 장

1. 아비야가 왕이 되던 해가 르호보암 18년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르호보암 18년이나 여로보암 18년은 같은 해다. 다만 르호보암은 죽었고 여로보암은 살아있으니 여로보암 18년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르호보암 18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위에 올라 17년을 통치했으니 아비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30세를 좀 넘겼을 수도 있겠다. 짧은 통치기간에 여로보암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렸다. 여로보암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다: 여로보암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무시했으며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율법을 경멸한 죄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로보암의 훌륭한 작전도 소용이 없었다.

3.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왜 소금언약이라고 할까?

변하지 않는 언약이란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위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를 쪼개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4. 싸울 때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꺾어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선지자였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한 것은 르호보암의 그릇된 판단 탓이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솔로몬의 잘못이다. 이런 점을 다 접어두고 여로보암의 배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난봉꾼과 잡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만 내세운 셈이다. 또, 르호보암이 어리고 언약하여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막은 것이다.

5. 자기 아버지 왕을 이렇게 어린 아이 취급해도 될까?

반대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6. 아비야는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조시키는가(8-11)?

유다는 여호와와 나라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의 나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신들은 허무하지만 유다는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7.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큰 무리란다(8). 이 큰 무리는 능력있는 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금송아지와 큰 무리를 연결시켜보라.

집승의 때라는 뜻이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우상을 섬기는 무리는 집승의 시끄러운 때에 지나지 않는다고 멸시하는 것이다.

8. 아비야가 이렇게 신앙적인 인물이었던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비야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기가 많이 꺾였을 것이다. 여로보암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비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포위하고 복병으로 하여금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했다. 분명히 유다는 놀라서 허둥졌다(14).

9.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셨지만 결국은 동쪽 50만 명이 희생됐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는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탓이다(20절 참고). 지도자의 잘못이 이런 비극을 부른다. 백성들은 무슨 죄로?

10. 아비야가 벧엘을 빼앗은 것은 의미가 크다. 여로보암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벧엘이 어떤 곳이기에 그런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두 곳 중의 하나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먼저 죽은 것은 아니다. 아비야의 이 일로 여로보암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11. 아비야는 3년 밖에 통치하지 않았다. 왜 일찍 죽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유가 뭘까?

유다를 배반한 여로보암을 제대로 징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열왕기에서 언급한 잘못(왕상 15:3)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역대하 14 장

1. 1절 후반절은 2-8절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10년의 평화는 어디서 왔는가?

우상 타파와 하나님 경배에서: 흔히 이 일은 아사의 1차 종교개혁이라고 한다. 그 결과로 경제적(6-7), 군사적(8)으로 강성해진 것이다.

2. 십 년 동안 평안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전쟁이 있었을 것: 일단 구스의 세라가 침공했다. 그 때까지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여로보암의 말기 2년, 나답 2년, 바아사 6년 이렇게 10년은 평화가 있었던 모양이다. 바아사도 쿠데타로 집권했으니 외부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북 이스라엘의 왕권 교체기를 틈탄 평화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 그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2, 5) 그 후에 바아사가 침공을 했지만 벤하닷의 힘을 빌려 물리쳤다. 왕상 15:15절의 기록은 그렇게 대치상태에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3. 아사가 깨뜨린 우상은 도대체 누가 세운 것이었을까?

아비야는 3년 밖에 통치하지 않았으니 제외하고 르호보암일까? 아마도 솔로몬의 후궁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솔로몬의 죄네! 주상과 아세라 상은 가나안인들의 것이지만 태양상은 애굽이나 바벨론의 것인데? 온 동네의 우상이 다 모인 것을 보면 솔로몬의 혐의가 짙다.

4. 아사는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7): 어디서 어떻게 이런 왕이 불쑥 튀어나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왕이었다.

5. 100만의 군사에 병거 300대는 너무 적다. 이상한 군대다! 참고로 시삭의 군대는 1200승이었다(12:3).

100만이라는 숫자는 아무래도 '아주 많다'는 뜻으로 쓴 숫자같아 보인다.

6. 아사왕의 아버지 때에 유다의 군사는 얼마였더라?

40만: 여로보암과 싸울 때 여로보암은 80만이었고 아비야의 군대는 절반이었다. 그 때에 비하면 많이 늘었다(58만).

7. 아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강하고 약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이런 신앙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또 다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대적의 침입은 위기이지만 신앙인에게는 오히려 복의 통로일 뿐이다.

8. 이렇게 노략질을 해도 되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전쟁에서 빼앗은 것은 승리자의 특권이였다.

9. 아사처럼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전쟁에서도 이렇게 승리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일이 훨씬 쉽다: 1절과 15:10절을 참고하면 이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이 아니다. 평안할 때 권고한 성음을 권축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빈둥거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통치를 했다는 뜻이다. 평화로울 때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아사왕을 선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역대하 15 장

1. 선지자의 이름이 아사랴야(1) 오네티야(8)?

8절의 원문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니 1절에 근거하여 아사랴라고 해야겠다.

2.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해야 자연스러운가?

그런 태도를 지속하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사랴의 말이 해석하기 어려운 점(과거인지, 미래인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조상들의 과거가 그랬고 훗날에도 그런 날이 실제로 온다.

3.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

주로 사사시대, 북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럼에도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만나 주셨다. 아사 시대에 보면 과거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지만 역대기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과거의 일이다.

4. 앞에서 우상들을 멸했다고 했는데 또 없앨 것이 있을까?

악을 척결하는 일이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다. 왕의 명령에도 깨끗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우상 숭배는 끈질기다. 다시 한 번 더 개혁을 시도한 셈이다. 더구나 에브라임 산지는 북 이스라엘에 속했다가 다시 찾아온 곳이라서 더 많은 우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사의 제 2차 종교개혁이다.

5.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말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아사 왕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 일평생 평안한 삶을 산 비결이다.

6.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니 북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신실한 자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다(9) 요즈음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탈출해서 남으로 귀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7. 구스왕 세라와의 전투를 완전히 종결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말인가?

4년: 14:1을 참고하면 아사 11년에 침입을 받았고 15년에 끝났다. 물리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평정하고 새롭게 통치체제를 구축한 기간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본다.

8.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것은 본래 누구의 말인가?

원본은 하나님(신 4:29, 6:5) 제일 중요한 복사본은 예수님(마 22:37) 그 다음 복사본은 아사(12)와 요시야(왕하 23:3)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9. 우상을 척결하려는 아사왕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태후의 위를 폐할 정도: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조모다(르호보암의 부인, 11:22).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왕이라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정쟁에 휘말려 왕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다.

10. 아사왕이 유다의 왕이니 이스라엘의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여기 이스라엘은 유다를 가리킨다. 아니, 어쩌면 유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느낌을 팔고 있는지도 모른다. 14:3에서 산당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얘기가 다르다. 대원권이 서원을 철폐하겠다고 나섰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면 어떨까? 산당의 우상들은 전부 제하여 버렸지만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일부 허용한 것 아닐까? 일제 시대의 절을 해방 후 교회로 사용한 것처럼? 추측일 뿐이다.

11. 아사 왕 제삼십오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왕상 15:16, 32과 왕상 16:8, 대하 16:1-5을 찾아보자.

왕상 15:16, 32에는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었다고 하고, 바아사는 아사왕 26년에 죽었는데(왕상 16:8) 대하 16:1-5에는 아사왕 36년에 바아사와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일평생 바아사와 대치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바아사가 전쟁 중에 죽은 것으로 본다면 이 전쟁은 아사왕 25년에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 후에는 평온했을 것이다. 19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들이 아사왕의 생애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아닐까?

역대하 16 장

1. 바아사는 아사왕 26년에 죽었다. 그런데 36년에 치러 왔다고?

36년을 26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은 모양이다.

2. 라마(예루살렘 북쪽 8km 정도)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은 베를린 장벽을 세운 것이나 38선을 막은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런 일을 처음 시도한 것은 누구며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일을 바아사가 새롭게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로보암이 시작했었는데 쿠데타로 집권한 바아사 때에 아사왕의 명성이 높아진 탓에 월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사왕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코 앞에 진지를 구축하는 셈이다.

3.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생을 지낸 아사왕이 왜 아람왕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일종의 노망 아닐까? 이래서 정년이란 것을 두고 강제로 물러나게 하나보다. 바아사가 하는 짓(3)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닐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사의 생각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으레 그렇게 하는 법이니깐. 합리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전의 보물까지 갖다 바친 것을 보면 그렇다. 자기가 말한 15:13 말씀대로 당하고 싶은 건가?

4. 하나님 대신 외세를 끌어들이면 골치 아픈 일이 뭘까?

그게 한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뒤탈이 날 가능성이 크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 백제를 멸망 시켰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다시 당나라와 싸워야 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한반도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5. 벤하닷이 바아사와 조약을 맺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사왕의 은금을 받고 돌변하여 공격해올 수가 있나?

벤하닷의 입장에서로는 평 먹고 알 먹기다. 국가 간에는 인격적인 교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간의 의리다.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버림을 당할 수 있다.

6. 공사를 포기하면서 건축자재를 왜 버리고 갔을까?

다급했기 때문이다.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북쪽을 쳤다. 급히 싸우러 가느라고 버려두고 갔다.

7. 라마를 건축하던 재료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으니 제대로 번 셈인가?

밀전이 많이 들어서 별로 남은 장사는 아니다. 여호와와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 주고 번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게바와 미스바는 라마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유다의 북쪽 경계상의 성읍이다.

8.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다른 자연 만물이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 비슷한 현상이 여기에도 있는가?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더니 아람 왕이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는데...

9.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사 왕이 전쟁이 없는 태평한 세월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기(9) 때문이다. 이 마음이 변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난다. 외적이 침입해오는 것이 아사 왕의 변심 탓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현상이다.

10. 선하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끝까지 선할 수는 없는 걸까?

인간이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므로 기준을 잘 잡아두고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중심! 코람데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 이유다. 아사는 선하다는 평가가 무색하게 선지자를 박해한 최초의 왕이 되었다.

11. 병이 났는데 의원을 찾는 게 잘못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의원이나 약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사(딤후 5:23)라는 것을 알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어디 가서 고치려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던가(왕하 20)?

역대하 17 장

1. 1절의 이스라엘과 4절의 이스라엘이 다를까?

같다.

2. 여호사밧이 특별히 군비를 확장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자기 아버지 아사왕이 바아사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였다(20:31). 여호사밧이란 이름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란 뜻이다(아사를 뜻하는 쇠파트와 같은 말). 아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에 붙여준 이름일 것이다.

3. 군대를 이렇게 주둔시키려면 막대한 경비가 드는데?

5절의 부귀와 영광: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 먼저 아닌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법이긴 하지만, 1-2절은 아래 내용을 요약한 셈이다. 그래서 선후를 따질 이유가 없다.

4. 유다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에브라임 성읍은 이스라엘 땅인데?

아마도 아비야가 바아사와 싸울 때 빼앗았을 가능성이 크다(13:19, 15:8은 참고). 그러다가 바아사가 다시 회복하고 라마를 요새화하려다가(16:1) 실패하고 아사의 손에 들어온 것 아닐까? 어쨌든 여호사밧 시절에는 유대에 속한 것이었다.

5. 다윗의 처음 길? 그러면 다윗의 나중 길은 무엇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나 인구조사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실수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다윗은 선한 왕의 표본이다. 처음에 하도 잘 해서 나중의 실수도 충분히 묻힐 수 있었다.

6. 여호사밧의 공적은 단순한 군비확장이 아니다.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한 것(4): 여호수아 이래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위대한 사사들이 등장했어도 일시적이었다. 다윗과 솔로몬 때 반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다. 알고 보면 이게 제일 쉬운 길인데! 결과적으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단(개역)

7.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다른 왕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7-9):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도록 조치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 엄청난 찬양대를 만들고 했어도 가르치도록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어디까지나 제사장의 일이었을 뿐이다. 방백과 레위인들과 제사장까지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한 것은 정말 특이한 경우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숭배가 사라지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수술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8.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신 11:23).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 탓일까?

분명히 그렇다(10): 하나님의 간섭이나 이적이 꼭 초자연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교인들 사이에 환자가 적단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면에서 해답을 찾으면 찾아지기도 하겠지만 근원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9. 아라비아 사람들이 짐승을 드리는데 왜 숫자 7,700이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조공을 받는 이스라엘이 그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 47회 동기회원들이 후원금 모금을 하면서 목표액을 4,700만원으로 했단다.

10.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를 합하면 얼마인가?

30만 + 28만 + 20만 + 20만 + 18만 = 116만: 대단한 군대다. 현재 우리나라도 군인이 적은 것이 아닌데도 50만 정도다.

11. 여호사밧의 군대는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전체)이었다. 좀 더 세분하면 어떻게 될까?

큰 용사(14, 16), 활과 방패를 잡은 자(17, 요즈음 말로 하면 중무장한 병사), 싸움을 준비한 자(18, 경보병?)

12. 지휘관은 아드나, 여호하난, 아마시야, 엘리야다, 여호사밧이다. 이들은 단순한 천부장이 아니라 수십만명을 거느린 천(?)부장이다. 그 중에 누가 눈에 띄는가?

아마시야: 으뜸은 아니지만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란다. 이런 표현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

역대하 18 장

-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것은 좋으나 이럴 때 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아합 가문과 가까이 하는 것은 비극의 출발점이다. 훗날 아합의 딸 아달라로 인하여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왕족(등급)이라고 혼인관계를 맺었겠지만 인간적인 눈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았더라면 결코 같은 등급일 수가 없다. 아마 민족의 통일이라는 꿈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인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훗날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왕하 11:1-3).
-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대답이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되나?
 '네 것이 내 것이고'의 반대 즉 '내 것이 네 것이고'라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 이런 말도 되겠다.
- 여호사밧의 충고에 따라 선지자들을 불렀다. 무엇이 문제인가?
400명: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다.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숫자다. 사람이 많으면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대답을 해도 다른 선지자를 찾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아합과 가깝게 지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호사밧이기에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예언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방식과 다른 점을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대규모로 전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자기 입맛대로 돌으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에 맞아야 한다? 거꾸로 된 일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가야 한다.
-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활동 하고 있었지만 다 가짜다. 오직 한 사람 미가야는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까?
모두가 말씀을 버려도 하나님은 꼭 자기 사람을 남기시더라: 이런 남은 자, 그루터기에서 자란 새 싹이 여호와 신앙을 이어갔다.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뜻이다.
- 이스라엘에도 내시가 있었나?
기본적으로 없다: 내시는 왕의 여자들을 고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궁궐의 일을 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세시킨 신하다. 짐승을 이렇게 다루는 것도 금하였다(레 22:24). 하물며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아합에게 내시가 있었다. 이방의 아내를 데려온 탓이다.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드기야는 왜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말씀을 전하는가?
일종의 시청각교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문제는 전하는 메시지가 바른 것이 아니란 점이다. 방법은 좋은데 내용이 틀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
-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는 얼마나 충성스런 신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입맛에 좀 맞춰달라고? 왕에게는 충성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왕을 이롭게 하는 신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 미가야가 좋은 말을 해줘도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인지 조롱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라고 다그친다. 바른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도대체 뭘 어찌란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그런 짓을 하지! 별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 좋은 말은 조롱이고 진심으로 하는 말은 벌일 수밖에 없다.
- 목자 없는 양이란 표현(16)은 불쌍한 중에도 불쌍하다는 뜻이다. 미가야의 예언에서는 목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 왜 그럴까?
그만큼 아합왕이 나쁜 목자라는 뜻이다: 양은 목자없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목자가 없는 것이 더 낫다. 저런 부모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아합이 얼마나 백성들에게도 해를 끼쳤는지 잘 보여준다.
- 아합 왕이 신(?)이 났다.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17). '보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 말이 맞는 것보다는 틀리는 것이 낫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자기 말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신이 나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로 일을 방해한 것이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뽐낼 일이 아니다.
-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한다. 다른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을 하는가?
거짓말하는 영(21): 다른 선지자들도 영감을 받고 받았네! 하나님께서 허용한 사탄의 영이다. 자신이 받은 영감이 거짓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알아? 평소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자들에게는 임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요일 4:1, 신 13:1-5).
-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의 말이 다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하고선 그 뜻에 순

종했는가?

아합의 죽음만 예고되었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그러면 가도 되는 건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이니까 가지 않았어야 했다. 결국 위협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런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15.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버렸다. 어떻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16. 시드기야가 골방에 왜 숨어야 할까?

거짓 예언이 돌통나서: 아합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인간이 시드기야일테니!

17.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란 먹고 마시는데 힘이 든다는 뜻일까?

죽지 않을만큼의 양: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떡과 물이다. 죽으면 고난도 끝이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다.

18. 이스라엘 왕이 왜 변장하고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 피가 많아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기는 한데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바보란 말인가?

미가야의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한 탓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는 아니다. 누군가가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찌찌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사밧을 설득할 만큼 잘 둘러댔을 것이다. 전군 지휘를 맡긴 것은 아닐까?

19.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한 것은 전쟁에서 당연한 일 아닌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쓸 이유가 있을까?

이전에 아람 왕이 당한 적이 있어서(왕상 20:31-34)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부연설명인 셈이다.

20. 아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킨 탓인가, 그들이 아합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왕상 22:32)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아본 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다. 결국은 같은 현상을 표면적으로 보느냐 이면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21.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나는 이스라엘 왕(아합)이 아니야!' 라고 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알 수 없다: '왕만 공격하라'는 적의 외침을 듣고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라고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듣고 아람 지휘관들이 알아차린 것 같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아합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전에 당한 적도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 여호사밧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람 지휘관들의 지혜 덕분인가?

아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만 그것을 사 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 없는 눈으 로 보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보느냐의 차이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되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

23. 죽을뻔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하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죽는가? 무심코? 우연히?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는다: 예전 성경에는 '우연히' 라고 번역되었다. 선지자를 통 해서 예언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우연이나 필연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복된다.

역대하 19 장

1. 여호사밧의 잘못이 무엇인가?

아합과 교제한 것(혼인 ↔ 고후 6:14)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여호사밧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민족의 통일이라는 거창한 명분이 있었을 테지만 결과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문제인 셈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북 왕국과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셈이다.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장에 나갔다가 위험한 일을 겪었던 것처럼 아합의 집안과 혼인한 것은 훗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

2. 여호사밧이 무사히 돌아온 걸까, 평안히 돌아온 걸까?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미가야가 예언할 때 아합 왕은 죽을지라도 나머지 백성들은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고 한 말씀(18:16)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3.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안 되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마 5:44)의 원수는 나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앗 5:31)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대적자를 사랑하시지는 않았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행동에 동참하라는 뜻이 아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돌아서게 하는 노력은 가능한 것이지만 그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고, 마 12:30, 눅 9:50, 눅 11:23, 고후 6:14)

4.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는데 여호사밧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휴! 다행이다. 왜?

그의 아버지가 한 행위(16:10)를 따라하지 않아서: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인 하나니가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에게 책망을 했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5. 이스라엘의 전국을 가리킬 때 흔히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여호사밧 시절에 유다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4): 북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는 원래 북 이스라엘의 영토다. 유다가 아비야 시절에 빼앗은 땅이다(13:19).

6. 왕이 친히 민정시찰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살핀다? 참으로 드문 일이다. 그런데 지난 번에 개혁을 했는데(17:6)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상은 뽑아도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잡초다: 잠시만 방심해도 우상숭배가 득세한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과 혼인을 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우상숭배의 터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4절의 '다시'란 말은 1차 개혁을 염두에 둔 표현 같다.

7. 왕이 백성들의 형편을 지속적으로 일일이 살필 수는 없다. 대리인을 잘 세워야 한다. 여기서는 재판관들을 세웠다. 1차 때와 어떻게 다른가?

1차 개혁 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다(17:7-9):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아예 재판관들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대로 재판한다면(=법이 살아있다면) 튼튼한 울타리가 쳐진 셈이다.

8. 재판관들은 왕의 대리인인가, 하나님의 대리인인가?

(왕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어야 한다: 왕이 세웠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고 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왕을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이런 관계가 가장 복되다.

9. 재판관들이 불의해서는 안 된다. 치우쳐서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7). 어떻게 해야 하나?

삼가 행하여야(=조심해야)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은 코람데오(신전의식) 정신으로 살았다.

10. 10절의 '어떤 성읍 형제'와 '너희'는 같은 성읍에 사는가?

다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재판관에게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관인 셈이다.

11. 재판관의 임무는 무엇인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10):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재판관의 임무가 정죄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단순 정죄를 넘어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한다. 교회의 책벌도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12. 우리 법에는 민법, 형법 두 종류가 있다. 이스라엘에는?

종교법(여호와께 속한 일)과 민법(왕에게 속한 일)이 있는 셈이다. 두 법을 관장하는 우두머리도 구별되어 종교법은 대제사장인 아마랴가 관장하고 민법은 유다 지파의 장로인 스바다가 관장했다. 아마도 여호사밧 시대부터 이렇게 구분되어진 모양이다.

역대하 20 장

1. 여호사밧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는 수가 있는가?

있다: 일시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3)이긴 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커다란 복으로 화하고 말았다. 설령 그것이 아합과 가깝게 지낸 일에 대한 벌이라고 하더라도(19:2) 회개하고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혁을 이뤄낸 여호사밧에게는 또 다른 복의 서막일 뿐이다.

2. 모압 자손과 압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세일산 주민들=에돔)이라면(2) 요단 동편 전체가 연합하여 쳐들어온 셈이다. 그런데 바다 저쪽 아람이란 무슨 말인가?

내용상으로는 '아람'이 아니라 '에돔'이어야 옳다. 그래서 아예 에돔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유다의 입장에서 바다 저편은 사해의 남동쪽을 가리킨다. 반면에 아람은 강 건너 북쪽이다.

3. 엔게디는 종려나무와 포도원의 고벨화로 유명하다(아 1:14). 하사손다말의 다말은 종려나무를 뜻한다. 사해의 서쪽 연안 중앙부에 있다. 공격 목표가 예루살렘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해의 동부에 있던 연합군이 어디로 쳐들어왔다는 말인가?

사해의 남쪽에서 올라온 셈이며 그렇다면 에돔이 주력부대이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엔게디보다는 훨씬 북쪽 산지에 있기 때문이다.

4. 외적의 침입에 맞서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예가 있는가?

사무엘이나(삼상 7:6), 사울이: 왕으로서 전국적인 금식을 선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5. 새 풀이라면 새로 지었다는 말인가?

아마도 여호사밧이 확장을 했거나 개축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 어떤 점에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좋은 기도인가?

하나님의 능력(6, 이방 나라도 다스림)과 행하심(7, 원주민을 쫓아내고 땅을 주셨음)과 약속(8-9,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켰다, 6:28-30)에 근거한 기도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런 기도를 가능케 한다.

7. 여호사밧의 기도(10-13)의 핵심을 다음과 요약할 때 ()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치러오는 ()한 놈들이 있나이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우리는 힘이 없나이다.”

배은망덕(10-11):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자기들을 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8. 대하 17:13-19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이 넘었는데 쳐들어오는 적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다고(12)? 왜 이렇게 허약한 소리를 하는가? 아합과 연합해서 싸우러 갔다가 타격을 많이 받았나?

인간적인 능력을 제쳐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인 것 같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그랬으니(14:11) 배웠을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어야 했던 모세의 경우(출 14:14)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9.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12)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라(17)고 대답을 하셨다. 흥해 가에서 주셨던 말씀(출 14:14)이나 마찬가지다.

10. 여호사밧이 드린 이 기도가 출전을 앞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야 할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이다(13).

11. 대제사장도 있고(19:8) 선지자도 있었는데(19:2) 왜 직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레위인에게 임하셨을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특정한 제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걸까?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잘 모르겠다.

12.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하셨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날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선지자를 보내던 시절이 있었고 직접적인 계시를 주던 시절이 있었다. 마지막 선지자가 오신 이후에 온전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런 계시가 임하였다고 믿은 탓에 실수를 저지른 이단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13. 이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텐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더라?

다윗(삼상 17:47), 요나단: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성(승패는 작전이나 군사력에 달린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나 여기서 야하시엘이 말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특

별한 간섭하신다는 뜻이다. 같은 표현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모든 전쟁을 이런 식으로 치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14.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할 일이 별로 없다. 할 일이 무엇인가?

구경꾼이다(17, 출 14:14):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고 했다. 맞서 나가라고 하셨지만 서서 보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15. 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렸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이야 레위인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증거다.

16. 찬양의 위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크다? 맞는 말인가?

승패는 찬양대를 세우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반드시 찬양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린 탓이다. 그 찬양 소리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단순히 찬양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17.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것은 누구인가?

여호사밧과 백성들: 왕이 백성들과 의논해서 세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에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결심을 했을 뿐이다.

18. 여호와께서 왜 복병을 두셨지(22)? 유다에서 선발한 복병인가?

아마 세일산 주민들을 복병으로 오인했을 것: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것으로 보아 그렇다. 도적떼들의 자중지란이다. 악한 목적을 품고 악한 방식으로 연합한 자들은 악한 방식으로 깨어지더라. 합세해서 적을 친 다음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19. 탈취한 물건들(25)이 이상하다.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무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아예 이길 것을 확신하고 거주할 목적으로 모든 재산을 끌고 온 모양이다.

20. 싸우지도 않고 엄청난 승리를 얻은 후에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단다. 무슨 뜻인지 짐작해보자.

축복의 골짜기: 축복을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 말이다(번개를 가리키는 바라크(사사기의 바락)라는 설명도 있음).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사왕이 취한 태도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16장). 승리라고 다 같은 승리가 아니다. 여호사밧의 승리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지만 외세를 등에 업은 아사의 승리는 불안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21.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다. 더구나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쳤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하다. 정상적이라면 무슨 소문이 나야할까?

암몬과 모압이 바보같이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망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지 이방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하다. 그리하여 태평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다. 평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22. 여호와 보시기에 일평생 정직하게 행한 여호사밧이 왜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을까? 17:6절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

여호사밧이 철거하려고 했으니 백성들이 완강하게 버틴 모양이다. 마음을 정하여만 표현이 그걸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23. 에시온 게벨은 유다에서도 아주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아카바만이 있는 곳이다. 에돔 지역의 남쪽인데 어떻게 거기서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지난 번 전투 후에 에돔이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양이다: 그 시절에 에돔에 섭정왕이 있었다는 것(왕상 22:47) 그런 의미다.

24.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행한 일에 큰 복을 주셨지만 악한 왕 아하시야와 손을 잡고 배를 만들어 해상무역을 하려는 계획에는 복을 주시지 않았나?

복을 주셨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속히 징계가 임하는 것이 복이다.

역대하 21 장

1. 여호사밧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다. 그러나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온 것,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 등의 실책이 있었는데 본문을 보면 또 무슨 실책이 있었는가?

후계자를 잘못 골랐다: 더 착한 다른 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악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까? 아마도 능력에서는 여호람이 제일 나았을지도 모른다. 여호사밧이 신실했음지라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도 믿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길 일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최선의 선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조차 게을리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할 것은 부도, 권력도 아니라 신앙이다.

2. 왕이 된 형이 동생들을 죽이는 일은 왕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대체로 왕권강화 차원일 것이다. 여호람에게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여호람의 몰락은 하나님을 저버린 탓이다. 아마도 동생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마저도 굳이 따지자면 왕권강화 차원일 수도 있다. 그 이면에는 아버지가 나누어준 재산과 권력을 혼자서 차지하려는 욕심도 있었을 것이다. 전부 거두어 들여 혼자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나? 힘이 없으면 모르되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가보다. 구제불능인 게 인간인가 보더라!

3. 여호람이 갔던 길은 유다 왕의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유다왕이 누려야 할 복을 주셨다. 이 때 이스라엘 왕들의 길과 유다와의 길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하나님을 저버린 것,

유다왕들의 길: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삼하 7:13-16)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길. 그래서 형벌은 내리지만 왕위는 끊어지지 않는다.

4.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합의 딸(아달라)과 결혼한 것: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여호사밧의 실책이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자신이 창기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다(고전 6:16). 결혼은 중요한 것이다.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도 안될 뿐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5. 아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 동물이나 땅도 더 이상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어떤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예돔과 립나(라기스 근방의 성읍)가 유다를 버렸다(8, 10).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도(16) 여호사밧 때에 크게 확장되었던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한다. 동생들을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해야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개인적인 야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라 자체는 허약해진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순종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사가 명심해야 할 말이다.

6. 예돔이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단다(8). 전에는 왕이 없었던 말인데 그럼 무엇이 있었지?

섭정 왕(왕상 22:47):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예시온 계벨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돔이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파견한 섭정 왕을 죽이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는 말이다.

7. 여호람이 출정했다가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예돔 사람과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잘 했다는 얘기갈지는 않은데?

야간에 기습을 당했지만 과신히 살아서 빠져나왔다는 말이다.

8. 여호사밧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아들이 왜 이 모양인가?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탓이다. 신앙을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못해도 어머니가 잘 전해주어야 할 판인데 어미가 한 술 더 떴으니... 망쪼다.

9. 엘리야는 북 왕국에서 아합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다. 그런데 어떻게 남 왕국의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그러니 글을 보냈다.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학자들에게 맡기자. 또 다른 엘리야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이세벨과 싸우던 엘리야니 그의 딸 아달라의 사주를 받고 있던 여호람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도 일관된 사역이다.

10. 여호람이 받을 재앙은 내용상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14-15). 무엇과 무엇인가?

외적의 침입(16-17)과 중병(18-19):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오래 동안 중병을 앓게 되리라는 것이다. 왕노릇도 얼마 해보지 못하고 오래 동안 생고생만 하는 셈이다.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2년 동안 고치지 못할 병을 앓는 것은 동생들을 죽인 대가를 톡톡히 치루는 셈이다.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 무슨 병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11.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왕자를 다 죽였는데 막내는 왜 살려주었을까?

적군이 살려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단칼에 끝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픔이다.

12.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디졌다(죽었다의 속된 말) 분향도 않고 아깝다고 여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역대하 22 장

1. 왕이 죽으면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예루살렘 주민이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고 할까?

아마도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민에 의해서 그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달라가 다른 주장을 폈을 가능성이 보인다.

2. 아버지인 여호람이 32세에 왕이 되어 8년을 치리하고 죽었는데(21:20) 막내 아들이 42세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왕하 8:26절에는 22세였다고 한다. 아마 그럴 것이다.

3. 여호람의 악행을 심판하실 때 아하시야를 제외한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21:17). 아하시야는 얼마나 착하기에 살려주셨을까?

착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윗의 씨를 보존하시려고 선처하신 것이다: 구스와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공에서 살아남은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이에 낳은 아이가 요아스다(아달라의 통치기간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즉위할 때의 나이가 7세, 23:21).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위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4. 이름이 왔다갔다 해서 미치겠다! 여호사밧의 막내 아들이 여호아하스라고 했는데(21:17) 여기서는 아하시야라고 하는가? 6절에는 아사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 = 여호와 + 아하스, 아하시야 = 아하스 + 여호와(야)이니 의미는 같다.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 부르듯이 그럴 수 있나보다. 아사랴는 아무래도 잘못 표기한 것 같다.

5. 어머니가 아들을 피어 악을 행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3)?

본인들은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나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아니, 더 해로울 뿐이다.

6. 아달라의 아들이 외삼촌 요람과 함께 하사엘과 싸운다(5). 결과는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패전이다: 아합과 싸우던 엘리야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운 세 사람(엘리사, 예후, 하사엘) 중의 한 사람이 하사엘이다(왕상 19:15-17). 그러니 결과는 명약관화다.

7.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 북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하사엘과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전투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에서 치료 중이었다. 아하시야가 문병을 갔다(전쟁터에서 갔는지 예루살렘에서 갔는지는 불명확). 이 때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인 예후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가(왕하 9장)?

전쟁터의 군사령관: 왕이 후송간 상황이라면 모든 권력이 일선사령관에게 집중된다. 이 때 엘리사의 제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예후가 전광석화같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켰다.

8. 아하시야가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집에 얼쩡거리다가 자신도 죽임을 당했다. 어디 놀 때가 없어서 망하는 집에 가서 얼쩡거리나?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준 것은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신실함: 아무리 그렇지만 여호사밧의 아들이니 장례는 치러주자는 것이다.

9. 결국은 아달라가 일을 저지른다. 권력이란 게 참 무서운 거다. 왕의 모후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자들(자기의 손자)를 모조리 죽이나? 백번 양보해서 단순한 권력욕 외에 아달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면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까?

친정(아합의 왕가)이 절단이 난 상황에서 스스로 권력을 잡지 않으면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길이 없을 것이란 두려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10. 여호람이나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탓도 있지만 아달라의 잘못이 더 크다. 그러면 아달라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왕비로, 대비로, 나중에는 왕이 되는데?

심판이 잠시 미루어지고 있을 뿐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당장 내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체되는 것도 아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11. 아달라의 악행 가운데서 그나마 왕자 하나를 살려낸 여호사밧은 아달라와 어떤 관계인가?

모녀간(친모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손자를 죽이는 판에 모녀간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용기 덕분에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어 가신다. 신신했던 여호사밧의 작은 실수로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용기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좋은 신앙을 지니고도 매사에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 아달라의 왕국 한 모퉁이에서 어린 요아스가 숨어서 자라고 있다. 무슨 느낌이 드는가?

장차 자라날 하나님 나라의 씨: 이 조그마한 씨가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된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다윗의 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아이가 다시 왕이 되어 떠저가던 여호와 신앙을 되살리게 된다. 모세 시대에도 유아학살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는 사단의 헛수고일 뿐이다(계 12:4).

역대하 23 장

1. 쿠데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동조자를 끌어모아야 하는데 참 쉽게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대인들을 잘 설득한 탓이라고 보아야 한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명분(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세벨의 딸 아달라는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통성을 지닌 왕자가 살아있다) 명분이란 것은 참으로 힘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반역에 동참한 자들은 명분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 백부장들은 왕의 호위대 장교들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백성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성전으로 불러 모아 성회를 여는 것처럼 해서 설득한 모양이다. 아달라가 저지른 악행도 이들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여호야다는 *D-day*로 어느 날을 택하였으며 이점이 무엇인가?

안식일: 아달라의 의심을 피하기에도 좋고 사람들(병사들)을 모으기에도 좋다. 비번인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8) 당번인 사람들과 배나 되는 군사를 확보하는 셈이다. 안식일에 이래도 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의로운 것으로 평가를 받은 셈이다.

3. 기초문 하나 지키는 데에도 1/3이 필요한데(4) 왕궁을 지키는데 안식일 성전의 당번 1/3로 가능할까?

이 왕궁은 궁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내의 왕의 집 혹은 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달라가 아무런 제지 없이 성전으로 뛰어온 것으로 보아 왕궁을 지키는 것이 아달라를 체포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문을 지키는 이유는 역쿠데타를 기도하는 세력으로부터 왕과 성전을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7).

4. 성전에 무기고가 있었나(9)?

다윗이 노획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었을 것이다(삼하 8:7, 삼상 21:9) 그렇다면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기념하는 것들(예컨대 금방패)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투를 위한 무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5. 반정치고는 참 이상하다. 쿠데타에서 기존의 왕을 체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텐데 그냥 쫓아내기만 한다?

백성들의 지지가 완전히 사라졌음으로 굳이 체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시하는 것 아닐까? 아달라를 따르는 자는 죽이라고 하면서도 그를 굳이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는 것도 유난히 더럽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6. 여호야다가 언약을 세워 여호와와 백성이 되리라고 한 것(16)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누가 이 언약을 깨뜨렸는가?

여호람: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세벨의 뜻을 따라 이방종교를 섬김으로 깨어버린 언약을 여호야다가 다시 되살린 셈이다.

7.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였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상을 버리고(17) 율법을 지키는 것(18-19).

8. 제사장이 쿠데타의 주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교분리라는 말도 있는데?

여호야다는 정치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되찾는 일을 한 사람이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인물이다. 본인의 신분에 적합한 일을 한 셈이다. 오늘날 성직자가 정치에 관여할 이 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역대하 24 장

1.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요아스는 어느 기간 동안 그랬다고 하는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2, 14) 죽고 난 뒤에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한다(수 2:7). 잘 배우고 가르쳐준 선조들이 떠난 후에도 배운 대로 평생 갈 수는 없는 걸까?

2. 왕이 명령을 해도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았나?

레위인들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일에는 익숙지 않아서 그랬을까? 요아스 왕 이십삼 년에 이르도록 그랬단다(왕하 12:6). 이런 여호야다의 책임이 크다. 혁명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도대체 뭘 했느냐 말이다. 사람마다 잘 하는 일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 하기는 어렵다.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

3. 성전세를 거두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는 것을 보아(6)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방법을 바꾸었다. 헌금궤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더니 제대로 되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성읍마다 거두러 다니는 것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성전에 궤를 두고 거두는 방식은 최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성전세를 내면 되니까 반발이 없었던 탓 아닐까? 강제로 거두는 것에 비하면 자원해서 드린 셈이다. 선한 일이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도 필요하다.

4. 요아스가 여호와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기까지 여호야다는 뭘 했을까? 어린 요아스가 이런 생각을 하려면 세월이 제법 흘렀음이 틀림없는데 대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다니? 스스로 해도 시원찮을 일을 하라고 해도 늦장을 부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무능함과 백성들의 불신앙이 겹친 것 같다. 여호야다가 참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다. 이런 일에도 능력을 발휘했어야지!

5. 성전세를 누가 관리하는가?

왕과 여호야다(12) 레위 사람들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에게 가져가고(11) 결재는 왕과 여호야다가 한 셈이다. 헌금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합부로 유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성도들이 기뻐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6. 왕하 12:13절에는 그 돈으로 다른 대접이나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다른 집기를 만들었다고 할까?

왕하에서는 성전수리 중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말이고 여기서는 성전수리를 마치고 난 뒤에 남은 돈으로 그릇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7. 대제사장이던 여호야다는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고 왕인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단다. 왜 이 모양이지?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위를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되찾게 하여 왕에 버금가는 일을 했지만 요아스는 거저 주어진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 우상을 섬기도록 사주한 유다방백들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유다의 방백의 위치에 있었을까?

아마도 정치적 비주류(여호야다를 위시한 제사장들이 주류)였을 것이다. 정치적인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악을 가리기보다는 반대를 일삼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인 인간들이 여호와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일도 아니다. 요는 요아스가 정치적이냐 신앙적이냐의 기로에서 정치를 선택했다는 말이다.

9.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여호야다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붙여주는 일: 여호야다가 공을 들여 결혼시켰지만 그 부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신앙으로 이끌어줄 참모들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호야다의 실책이다. 정치적인 담력으로 왕위를 회복시키기는 했으나 지혜롭지 못했던 모양이다.

10.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지적할 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라고 한다(눅 11:51, 마 23:35). 사가랴는 여기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아마도 손자) 스가랴를 가리킨다. 사가랴 이후에는 의인이 피를 흘린 경우가 없을까?

많이 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 그럼에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순서상 마지막 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라고 할 것을 '창세기(의 아벨)에서 역대기(의 사가랴)까지'라고 한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셋으로 구분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다섯 권,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8권(소 선지서 12권은 한 권으로 취급함),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성문서 11권이 그것이다. 열왕기와 역대서는 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열왕기는 선지자가 기록했으므로 선지서에 포함되고 역대기는 제사장

이 기록했음으로 성문서로 분류되어 마지막 책이 되었다.

11. 여호야다는 유다의 왕조를 지켜내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대제사장으로는 그다지 유능해 보이지 않았다. 죽을 때의 나이를 참고해서 왜 그런지 추측을 해보자.

나이 탓이었겠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면 그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일은 최소한 90세를 넘어서 된 일이다. 그래서 정년이 필요한 모양이다. 아무래도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판단력이나 결단력에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다.

12.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백성이나 왕을 감동시키시면 안 되나? 애꿎은 스가랴만 감동시키셔서 풀에 맞아 죽게 하시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시지 않는다. 최소한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

13. 여호야다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큰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인간이 그렇더라! 특히 돈이나 권력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더라.

14.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배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적은 우리가 쳐들어왔으나 심히 큰 군대로도 이기지 못하였다(24)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된다. 설령, 잘 된다 싶어도 길지 않다.

15.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크게 부상당한 요아스를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값을 갚으려고 반역한 무리들은 상을 받아야 하나?

상 받을 사람들은 아니다. 진작에 요아스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다. 힘을 다 잃어버린 왕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죽였으니 반역일 뿐이다.

16. 왕을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원성도 높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은 반역자들의 뜻이었을 것이다. 반역자들의 입장에서 왕으로 정당하게 대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까?

다윗의 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바람과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 때문이다: 자기들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잘못된 행위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운 이상 정통성을 가진 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권은 자기들이 가진 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역대하 25 장

1. 정직하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평가는 이상하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정직한 게 아니지 않은가?

아주 선한 왕도 아니고 아주 악한 왕도 아니란 말이다. 믿기는 믿는데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성도처럼! '이왕 믿는 거 화끈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걸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성도처럼 했던 모양이다!

2. 왕을 모반한 자들을 왜 이제야 죽이는가?

일종의 성공한 쿠데타였기 때문이다. 모반한 자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요아스가 왕권을 확립하고 난 후에 죽였다. 성공한 쿠데타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역사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포악한 왕을 몰아내고 왕권을 가로채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권력을 내놓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흔히 하는 말 '나라가 바로 잡히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지만 믿기 어렵다. 자칫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짓이다.

3. 성경에는 연좌제가 없다(4). 그러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신 5:9-10)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부모들의 죄가 지닌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모의 악물 복용이나 악할 중독, 잘못된 성생활로 인한 기형아의 탄생이나 그 외의 나쁜 영향력은 보통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죄는 3, 4대까지 깊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벌을 준다고 해도 벌하기 보다는 은혜를 더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한 모양이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한국인이 가진 미신 같은 냄새가 난다.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들은 믿어도 헛일인가? 그런 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는 풍성하게, 벌은 아주 조금 흥내만 내려는 것'이다.

4. 역적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아마샤가 그만큼 말씀에 충실했다는 뜻인가?

분명히 그런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반을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요직에 있었다. 세월이 상당히 흐른 후이기 때문에 회유책 없이 강공책만 구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5. 신명기는 요시야 시대(아마샤보다 200년 정도 후 시대)나 포로 시대 이후에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기존의 전통을 모조리 뒤엎고, 이스라엘의 종교도 진화론처럼 발달되었다는 전제에 따라 고등종교의 내용을 담은 것은 후대의 작품으로 돌린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장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다면 4절이 그런 학자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구절이 된다. 왜 그럴까?

본문에서 아마샤가 지킨 모세의 율법책이란 신명기를 가리킨다.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6절)은 신 24:16의 인용이다. 신명기가 후대의 책일 수가 없어진다.

6. 30만이라는 군사가 적나?

아사의 군대가 58만이었고(14:8)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이었단(17:14-19)을 감안해 보면 적다고 볼 수 있다.

7. 이미 돈을 줬는데 포기하라고(9)?

손해 볼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복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따르기 어려운 일이다

8.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는가?

하나님대신 이스라엘을 의지하기 때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하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려는가? 미워도 하나님 언약의 자손인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다. 여호사밧이 그랬다가 유다에 엄청난 고난을 안긴 것이 얼마 전인데...

9. 돈을 받고도 일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무슨 불만?

양심을 품은 탓이다: 무시당했다는 걸까?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불만일까?

10. 아마샤가 돌려보낸 군사가 약탈한 지역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벧호론까지'란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사마리아는 유다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유다를 친 셈이다.

11. 아마샤는 어느 나라를 치러 갔는가? 세일 자손이 살던 바위 꼭대기란 표현을 참고하자.

예돔: 세일산을 기반으로 살았던 예서의 후손이다(삼 1:3 참조). 왕하 14:7절의 셀라는 바위라는 말이다. 예돔이 유다의 속국으로 있다가 벗어난 것이 여호사밧 때의 일이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가와 친하게 지낸 결과로 유다는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가 그나마 아마샤가 다시 예돔을 정벌한 것은 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예돔에게 대승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

이었기 때문이다.

12. 세상에 이런 바보짓을? 패전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긴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

번지르르한 외양에 끌린 것 아닐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보기에 그럴듯하면 신이 될 수도 있다.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사례가 하도 많으니!

13. 출전할 때에는 선지자의 경고를 잘 들더니 이제는 우습게 여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승리하고 난 뒤에 약간 흥분했나보다(19). 하나님 덕분에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하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호사밧 이래로 참으로 오래만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승리를 주셨는지 생각했어야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샅을 내어 데려왔다가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인들의 행패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교만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번 승리했다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가? 그렇게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란단다.

14.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아도 신하들의 말은 들나 보다. 무엇이 다르기에 그럴까?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인 반면에 신하들이야 입에 발린 소리를 했을 것: 에돔도 정복했는데 이스라엘인들 못 이기겠느냐는 식으로 야부를 했을 것이다.

15. 아마샤가 대면하자는 말은 한번 만나자는 뜻이 아니다. 요아스가 하는 말을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막 먹자고? 가시나무가 어떻게 백향목과 같이 놀겠느냐는 것은 급수가 다르다는 말이다. 그렇게 까불다가는 짐승들에게 짓밟힐 것이란다. '급수가 다르니 까불지 마라. 집에 가서 애나 봐라!'는 것이다.

16. 요아스의 답변 내용 중에서 아마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는 내용을 두 가지 지적한다면?

자기는 백향목, 아마샤는 가시나무

짐승에게 짓밟힐 것: 굳이 자기가 손댈 필요도 없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아마샤는 그렇게 느꼈겠지만 애석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요아스의 말이 맞았다.

17. 요아스의 답변을 아마샤가 왜 듣지 않았을까?

어차피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아스의 답변도 들을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한판 불자고 보낸 답변이다. 처음에 주의해야지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빠기 어렵다. 쓸데없는 고집도 화근이지만 그런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출하면서 너무 큰 소리 치지 마라, 들어오기가 더 힘든 법이다.

18.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을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 유다 땅인 벧세메스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요아스가 먼저 쳤다는 말이다. 6.25전쟁이 누가 일으킨 전쟁이냐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원인을 깊이 따질 필요가 없다. 전쟁 초기의 양상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19. 유다의 군사들은 왜 장막으로 도망하였는가?

군인이 군인이기를 포기했다는 말이다. 전쟁의 패배를 뜻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20.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쉽게 점령되지 않는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에도 몇 년간 버티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당했을까?

왕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마샤가 용감하게 뛰어나간 탓일 게다. 요아스도 합부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벧세메스를 공격했는데 아마샤가 경솔하게 뛰어나갔다가 사로잡힌 모양이다. 까불지 말아야 하는데...

21. 모처럼 왕을 사로잡았으니 통일왕국을 이루지 왜 그냥 두었을까?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 나라로 동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정통성이 약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지배하기는 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럴 바에는 약한 왕을 세워 꼭두각시 정권을 만드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아마샤를 인질로 잡아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22. 오벤에돔이 지키는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벤에돔 가문은 성전의 곳간을 지키던 임무를 맡았다(대상 26:15). 그러니까 24절은 성전의 재물과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아갔다는 뜻이다.

23.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렸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백성들이 그를 버렸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이 행한 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임할 때가 많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거역했더니 모든 짐승들이 자신을 거역하고 심지어 땅도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

24.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왜 모반을 일으켰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아마샤가 섭정 왕이 되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패전과 포로생활이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역대하 26 장

1. 일반적으로 왕위는 백성들이 결정하지 않는다. 왕이나 왕의 측근에 의해서 결정되기 마련인데 왜 웃시야는 유다 온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고 할까?

아버지(아마샤)가 반역으로 쫓겨났기 때문이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조가 바뀐다. 반면에 유다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왕조가 변하지 않았다(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판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지만 말이다.

2. 엘랏은 어디일까?

아카바만, 예시온 계벨 근처에 있던 에돔의 항구도시였다(왕상 9:26, 8:17). 엘랏이라고도 한다. 다윗 시대부터 유다에 복속되었으나 여호람 때에 에돔의 반란으로 잃었다가(21:8-10) 아마샤가 되찾은 땅이다(25:14). 유다의 전성기 때에는 최남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에일랏이라는 지명으로 이스라엘이 옮겨져 있고 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이 좁은 지역에 밀착하고 있어서 여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3. 왕 노릇을 52년간 했다고? 어떻게 오래도록 왕 노릇을 잘 했을까?

어렵다: 실제로는 아버지와 함께 24년, 아들과 함께 12년을 통치했다. 그러니 단독으로 통치한 해수는 16년 정도다.

4. 쓸데없이 북이스라엘과 싸워 참패를 당하고 결국은 백성들에게 쫓겨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아마샤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웃시야가 잘 따랐다는 말이다. 아마 아버지의 처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던 모양이다.

5.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또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그랬다는가? 어디서 이 비슷한 표현을 보았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삿 2:7, 18),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삼상 7:13, 15),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왕하 12:2)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6.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한 것(6)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아마샤가 나라를 말아먹다시피 했는데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옹립된 웃시야가 이렇게 단 기간에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 탓이다(15, 7절):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군대를 조직했으며 경제력을 키웠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때 차지한 야브네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 된다. 예루살렘 함락(AD 70) 후 이 곳에서 회당을 열고 율법을 가르치자 산헤드린 공회가 이 곳으로 옮겨와서 유대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곳이 된다.

7.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국방과 동시에 경제 부흥도 일으켰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군사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방도 튼튼히 해야 하지만(9)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10) 강한 군사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윗 왕조에서 이렇게 경제력을 키운 왕이 거의 없다. 적대국인 앗수르의 기록에도 '지중해 연안 국가의 우두머리 왕'으로 나온단다.

8. 웃시야가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강성하여진 것이 자기 탓인 줄 안 것: 아무리 강성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신 8:18)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까? 조금 잘되면 자기 탓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고질병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신 8:12-14) 중의 하나다.

9.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었을까?

정교일치의 절대권력을 잡으려는 야욕일 것: 주변 나라에서는 왕이 정치와 종교를 혼자서 틀어잡고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양분 되어 있었다. 그렇잖아도 강력한 왕이었는데 더 강력한 왕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10. 왕의 앞을 막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어차피 죽을 각오를 했으면 혼자 죽을 각오를 하지 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갔을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용맹하고 사명감에 불타오른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것이 중요할 뿐! 마침 아사랴에게는 함께 용기를 내줄 동료가 많았다.

11. 다행이다. 왕이 화를 내는 순간에 나병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즉각적인 심판을 면치 못한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다(레 10:1-2).

12. 웃시야가 더 강력한 왕이 되기를 소망한 결과는 어떠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왕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왕실의 묘자리도 잃어버렸다.

13.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였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왕의 가족을 장사하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곁에 따로 만
든 곳에 장사되었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역대하 27 장

1. 아버지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한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왜 안 들어갔지?

왕이라도 성전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했지만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 나병에 걸린 것을 흉내 내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아버지 웃시야가 나병환자였으므로 거의 10년 동안 섭정을 했다. 아버지가 그런 꼴을 당한 것을 보고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2.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도대체 왜 그런지 왕하 15:35를 보자.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당제사는 폐지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행한 것을 가리켜 부패한 일이라고 한 것이다. 허용될 때도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것은 바뀌어야 한다.

3. 여호와의 전에도 문이 많이 있다. 요담이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증축했다는데 이게 언제 무너졌더라?

할아버지인 아마샤 때(25:23) 이 때 무너진 것을 웃시야가 많이 보수하고(26:9) 남은 부분을 요담이 계속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윗문은 외부의 문이 아니라 왕궁과 성전 사이의 문으로 추측한단다)

4. 아버지 웃시야 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었다. 주로 요단 서편인 블레셋과 남쪽을 정벌했다. 반면에 요담은 어느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가?

동편: 압몬은 요단 동편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5. 압몬 자손이 제 삼년에도 조공을 바쳤단다. 그러면 제 사년에는?

아마 바치지 않았던 모양이다: 요담의 말년에(아마도 아하스와 공동 통치 시절)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왕하 15:37). 아마 이 때쯤 압몬이 조공을 거부했을 것이다.

6. 요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사적, 경제적 번영을 이룬 셈이다. 반면에 신앙적인 면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백성들은 더욱 부패해졌다.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신앙에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엄청난 퇴보를 가져온다. 이 시대, 즉 웃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의 모습은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다(사 1-3장).

역대하 28 장

1. 웃시야와 요담이 비록 불안정하나 선한 왕으로 불리면서 나라의 기틀을 간신히 세웠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불안한 조짐이다. 결국 무슨 일이 터지는가?

온갖 이민족의 침입: 이민족의 침입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이제는 알만 한데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앞날이 오늘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2. 유다의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하스는 누구의 길로 행하였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길일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왕상 15:34)이요, 아합의 길(왕하 8:27)이다: 아하스가 왜 배우지도 않은 먼 곳의 길을 걷는지 내 참! 필경은 멸망의 길이란 것을 몰랐을까? 여로보암의 집이나 아합의 집이 결국은 멸족되고 만 것을 정말 몰랐을까?

3. 우상을 섬기되 한두 가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온갖 우상을 다 섬긴 모양이다. 그 중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것'은 무슨 우상을 섬긴 것일까?

물백: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던 이교의 우상이다. 레 18:21, 20:2-5에서 금한 것이다. 아하스는 되먹지도 않은 종교자유화 정책을 편 걸까?

4. 하루에 군사가 12만이 죽고 왕자와 내무장관과 총리가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면 전쟁은 끝이 난 것 아닌가? 왕은 어디서 무얼 하는가? 왕하 16장에서 답을 찾아보자.

예루살렘에서 문을 닫아걸고 버티고 있었다: 덕분에 예루살렘만 제외한 전국이 초토화된 셈이다. 왕의 아들 마아세야는 아하스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 아하스가 20세 즉위했고 즉위 초에 일어난 전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왕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5.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인가, 유다를 위한 선지자인가?

선지자는 어디에 있든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적(유다)을 이롭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다.

6.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예컨대 '동생들 손 좀 보랬더니 아예 죽어 났다. 그러면 너도 죽어봐라?' 훗날 앗수르도(사 10:5-12) 에돔도(욥 1:11-16) 이런 식의 징계를 받는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쉬운 말로 바꾸어 보자.

너희도 행한 대로 한번 따져볼까?

8.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을 세운 때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다. 간간히 선지자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 때 뿐이었다. 우상을 섬기며 쿠데타로 날을 지새던 에브라임 땅에도 진실된 성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랫 선지자와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12)과 이들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14)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싶었는데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우상만 섬기는 사회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수십, 수백년 동안 공산당, 혹은 우상이 지배하던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랐던가!

9. 역대기의 초기 독자들은 대부분 유다 출신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듣기에 좀 거북한 부분이 무엇일까?

유다가 불순종하여 징계를 당하는 판에 에브라임이 주축이 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점: 에브라임 출신이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동참할 명분을 주는 셈이다.

10.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도로 먹이고 고쳐서 되돌려준 이런 예가 또 있을까?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엘리사의 경우) 일반 전쟁사에는 결코 없는 일이다.

11. 동쪽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에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마저 유다를 쳐서 뜯어먹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 그러나 아하스는 애석하게도 앗수르를 찾는다.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자칫하면 더 큰 화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12.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한 지명에는 어떤 익숙한 지명이 보이는가?

벧세메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곳이다.

아알론: 여호수아가 대적과 싸울 때 달이 머물렀던 골짜기다.

답나: 삼손이 붙잡힌 하탄 곳(삿 14, 15장)

종합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하면서 뺏고 뺏기던 땅이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블레셋도 에돔도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13. 아하스는 유다 왕인가, 이스라엘 왕인가?

유다 왕임에도 굳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19)은 그의 악함을 비꼬는 것이다.

14. 어쩌다 매를 맞을 수는 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다. 그런데 매를 든 아버지에게 오히려 대항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나?

끝이지: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구제할 방법이 없다.

15. 아하스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은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세력을 넓혀가던 앓수르를 바라본 탓이다. 그래서 친히 앞장서서 앓수르의 신을 섬기기도 했다. 결과는?

망했다(23): 성전 문을 닫고 앓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앓수르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노력의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하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다. 아무리 아무리 경고하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을만한 이적을 구한다면 어떤 이적이라도 보여주겠다고 사정해도 들지 않았다(사 7:11-12).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억지로 주신 이적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선언이다. 아하스는 아버지가 문둥병이 든 채로 뒤에서 잔소리하는 세월을 오래 지내면서 비뚤어진 것 아닐까?

16. 왕하 16장과 본 장을 비교해 보자. 내용은 동일한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열왕기의 기록은 사건 자체만 기록하는데 반해서 역대기는 사건의 발생 원인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자세히 첨가하고 있다. 일종의 신학적 해석을 가한 셈이다. 사실은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다.

역대하 29 장

1. 선한 아버지(요담) 밑에서 악한 왕(아하스)이 나야고 악한 아버지(아하스) 밑에서 선한 왕(히스기야)이 나온다. 도대체 왜 이럴까?

자식이 보고 본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반대쪽으로 교훈을 받기도 한다: 너무 신앙만 강조해도 반대쪽으로 튼기도 한다. 인간의 본성에 자유가 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최고의 평가다. 히스기야외에 단 2명의 왕만 이런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여기 히스기야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여호사밧(17:3), 요시야(34:2)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고, 히스기야는 폐쇄된 성전을 다시 열었고,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는 이유였을 것이다. 이들을 남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한다.

3.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3) 더러운 것을 없앴다(5) 누가 성전을 닫았고,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했다(28:24) 성전 마당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왕하 16:14)

4.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한다.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성결하게 함(5) 하나님을 섬길 레위 사람들과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이 급선무이었다. 히스기야의 행적은 32장까지 계속된다.

5.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하스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고난(8)의 의미를 깨달은 것: 아하스는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28:5-7), 에돔과 블레셋(28:17-18), 앗수르에 패배(28:20-21)를 당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갔지만(28:22-25) 히스기야는 이 고난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입힌 것을 깨달았다. 부자지간에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더구나 앗수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던 국제정세 속에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받아들인 탓이다. 아하스가 끝까지 거부했던 그 메시지를 아들이 받아들였다!

6.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히스기야는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 은혜를 입은 셈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움(10):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다(6:7).

7. 5-11절은 히스기야의 명설교라고 볼린다.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5절: 성결하라, **6-7절:** 고난의 원인, **8-9절:** 목도한 고난, **10절:** 스스로 행한 결단, **11절:** 헌신 요구

8. 히스기야의 명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한 레위인들은 계보별로 몇 명이며 전부 몇 명인가(12-14)?

7개의 계보별로 2명씩 14명이다: 레위 지파의 3대 계보(그핫, 므라리, 게르손 자손)와 다른 4 계보(엘리사반,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이다. 이름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지만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9. 이 레위인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랐는가?

왕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명령한 것: 여차피 이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된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참으로 복되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 곧 국가를 위하고 성도가 목사의 말에 순종한 것이 곧 하나님을 섬김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10. 레위인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레위인들은 성전의 외부를 청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깨끗케 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역할을 잘 분담해서 성전의 안팎을 청결케 했다.

11. 성전을 청결케 하는 데 며칠이나 걸렸는가?

16일: 첫째달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인 것을 감안하면 유월절 전에 마치려고 했던 것이 조금 더 길어진 것 아닐까 싶다. 도대체 뭘 얼마나 어지럽혀 놓았기에 유월절을 제 때에 지킬 수 없을 정도였을까?

12. 히스기야 왕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렸다. 무슨 속죄일까?

조상들이 그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소를 더럽게 한 죄: 24절에 보면 번제도 드렸다. 그럼에도 주로 속죄제를 드린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속죄제가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13. 왕과 회중들이 속죄제물에 안수했다. 제물에 안수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 됨: 자신들이 죽어야 할 것을 안수를 통해서 하나 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다. 죽어야 할 당사자가 자신임을 고백하는 의미다.

14. 히스기야가 인용한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이(25) 무엇인가?

성가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25-30): 악기를 다루는 자와 노래하는 자를 조직한 것은 다윗이다(8:14).

그래서 이 때 연주되는 악기를 다윗의 악기라고 한다(26, 27). 30절의 다윗은 찬송가의 작곡자라는 의미다! 갓과 나단이 어떻게 이 일에 관여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15. 원래 제사법은 번제를 드리는 규정뿐이었다. 여기서는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동안 어떤 것들이 추가 되었는가?

노래, 나팔, 악기, 온 회중의 경배가 이어졌다: 이전의 단순한 제사보다 다채롭고 화려하게 드러졌다.

16. 여호와와의 시(27)와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30)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것: 다윗의 시는 시편 1권 4권, 아삽의 시는 시 50, 73-83편이다. 이들의 시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했기에 여호와와의 시라고 했다.

17. 성전을 성결케 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 무얼 해야 하는가?

번제와 화목제(=감사제물):

18.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엄청나게 많다(32-34). 이런 열심을 가진 백성들이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지냈을까?

백성들의 신앙도 지도자가 길을 터주지 않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성도들의 열정도 목사가 잘 이끌어줄 때 빛을 발한다. 목사가 잘못해서 성도들의 열정을 짓누를 수도 있다.

19. 제물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 왜 제사장이 부족하지? 레위 사람들이 더 성심이 있었더라는 표현을 참고해 보자.

아하스 시대의 범죄에 제사장들이 더 노출되어 있었기에 성결의 절차가 더 필요했을 것이고 제사장의 수도 감소했을 것이다.

20. 레위기의 번제를 드리는 장면과 비교해보면 여기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는 것: 손이 모자라서 그 일을 레위 사람들이 도왔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았다. 성전 제도가 확립되면서 제사드리는 일이 좀 더 전문적인 일로 취급되면서 이렇게 변화된 것 아닐까? 더구나 이때는 갑자기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니 그럴 필요가 더 있었을 것이다.

21. 아하스 왕 때에 배교행위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에도 순식간에 성전예배가 대규모로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예비해두셨기 때문이다(36).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자를 예비해두신다. 중국이나 북한의 오랜 세월 공산치하에서도 신실한 주의 백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역대하 30 장

1.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왜 이스라엘에게 보냈을까?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일부 사람(6절의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이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같은 내용으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히스기야의 관할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다(5). 본래 유다는 이 표현의 절반(1/3)도 안 되는 지역이다.

2.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

유월절 제 때에 지킬 수 없었다: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려고 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월절을 한 달 간 미루어서 지키기도 했다(민 9:10-12).

3. 유월절을 한 달간 미루어서 지키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인가?

왕과 온 회중(4):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독으로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며 동의를 얻어 말씀대로 이룬 것임을 보여준다.

4. 1절에서 사람과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선 5절에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였다는 것은 중복인가?

1절은 2-9절의 요약본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글쓰기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려고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 두 줄로 요약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5. 5절을 NIV 성경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오랫동안 ↔ *in large numbers*: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 지켜지기는 했어도 온 백성들이 함께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다는 점도 양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6. 웃시야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6-9)?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여호와께 돌아오라, 목을 끈게 함):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는 권면이다.

7. 남은 자들이 회개하면 포로로 잡혀간 자녀들이 돌아온다(9)?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가능한 일이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드린 기도에서 이런 대목이 있다(대하 6:24-25). 솔로몬의 이 기도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레 26:40-42)에 근거한 것이다.

8. 포고령의 범위가 단까지인데 스불론까지 갔다? 더 갔다는 말인가, 덜 갔다는 말인가?

덜 갔다는 말이다. 단까지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최북단인 단 지경의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가버리고 없었거나 스불론 사람들의 조롱에 더 이상 가봐야 소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9.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다니?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10.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더니 갑자기 무교절인가?

유월절에 바로 이은 절기가 무교절이라서 결국은 같은 절기로 취급되었다.

11.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미 제단 향단들을 기드론 시내에 버리지 않았던가(29:16)?

그것은 성전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14절은 예루살렘 성을 청결케 한 것을 의미한다.

12. 백성들의 무리가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을까?

무교절을 지키는 일에 백성들이 더 열심이였을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지은 죄가 있어서 자시 말하면 자격지심에 열심을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13.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끝까지 말썽이네.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제사 제물을 먹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셨다고?

고의로 유월절 규례를 어긴 것 같지는 않다. 처음 드리는 유월절 제사라서 잘 몰랐거나 먼 곳에서 오느라고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규례를 어긴 것 같아 보인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규정보다는 마음(=19절의 결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14. 범죄한 이들을 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특정한 질병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회복되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21, 25-26):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악기를 동원해서 7일 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즐거운 축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즐거워야 한다.

15.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고 또 일주일을 더 지켰다. 절기를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여도 되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더구나 전례가 있다(대하 7:9).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왕이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자발적으로 결의한 것이니 마음이 담긴 것임에 틀림없다.

16. 3절에서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고 한다. 24절에는 왜 많았다고 할까?

유월절에 제 때 드리지 못한 이유가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기했으니 그 기간 동안 제사장들이 성결케 했다는 것이다.

17.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 종류로 분류해 보자.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은 엄밀히 말해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인데 아마도 개종한 체류 외국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8. 솔로몬 때는 무슨 큰 기쁨이 있었을까?

가장 큰 축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축제이었다(대하 7:4-7). 거기에 버금가는 축제였다는 의미다. 제물의 양과 참가자의 숫자,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처음 성전 봉헌하던 때 못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대하 31 장

1. 우상의 찢고 깨트리는 일은 주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백성들이(1) 스스로 그렇게 했다. 왜 그러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

2.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다윗이 제정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도 회복시켰다.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또 무얼 해주었는가?

일에 필요한 제물도 제공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와 율법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서 뒷받침을 해주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하스 시대에 성전문을 닫아걸었으니 이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했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3.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과 왕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왕: 왕이 바로 서자 모든 일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돌아간다(5-7). 제사장이 있어도 왕이 우상을 섬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잘못이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를 싫어하셨던 것 아닐까?

4. 백성들이 가져온 십일조를 쌓는 일은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다. 이것은 십일조로 바친 것이 많아서 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뜻이 아니라(‘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기간’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종교력 첫째 달에는 유월절이 있다. 그러면 셋째 달과 일곱째 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의 추수는 맥추절(칠칠절,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수장절(장막절)에 마친다.

5. 백성들이 바친 예물 더미를 보고 왜 여호와를 송축하는가?

십일조로 바친 예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0). 레위의 복에 재산이 풍족하게 되는 것이 있다(신 33:11). 이것은 모든 지파의 복이다. 다른 지파가 재산이 풍족하게 되지 않는데 레위만 그렇게 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6.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게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맡아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장면을 길게 묘사하고 있다(11-19).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절차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취업하는 것이나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창고지기는 고나냐와 시므이고(12) 10명의 조수가 있었다(13). 분배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인가?

고레(14): 창고를 지키는 것보다 분배하는 일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고레의 수하에서 예물을 분배하는 일을 더 길게 소개한다(15-19). 특히 이런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일이다.

8. 창고를 지키는 것보다 분배하는 일이 더 어려운 법이다. 고레가 한 일과 그의 수하 사람들이 한 일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고레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고(14), 6명의 수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제사장의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15). 대상에 따라서 담당자가 다른 셈이다.

9. 양식을 나누어 줄 때 3살부터 한 사람으로 계산한 모양이다(16). 젖 떼자마자 성인 취급을 해준 셈이다. 이것(16, 18-19)을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성과급은 무엇인가?

직임을 맡아서 수종 드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나누어준 것(17): 20세 이상의 레위인이어야 직무를 맡고 수종을 수 있었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원래 회막일은 30세가 넘어야 할 수 있었는데(민 4:3), 나중에 25세로 낮췄다(민 8:24). 다윗이 다시 20세까지 낮추었다.

10. 제사장의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반열대로 여호와와 전에서 수종 드는 레위인 외에도 양식을 나눠줘야 할 레위인들이 있는가?

있다: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줬다. 왜 제사장들이 들에 사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들에서 제사장들의 가축을 돌보지 않았을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성읍에 딸린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니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을 감독하지 않았을까?

11.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한 왕이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세 가지 평가 항목이 21절과 어떻게 관련될까?

선이란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일을 위한 헌신, 정의란 율법과 계명이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노력한 것,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을 가진 것을 가진 것을 보면 좋겠다. 별도의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고 겹치는 것이다.

12. 자신의 수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일이 쉽다. 히스기야가 애쓴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형통: 히스기야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이다. 자신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역대하 32 장

1. 산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대응에 관한 기록은 왕하 18:13-19:37, 사 36-3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 본문은 간단하게 기록한 셈이다. 비교해 보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다윗의 잘못에 대한 기록도 생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2. 유다를 침공한 산헤립이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왔을까?

아니다. 실상은 예루살렘만 남고 유다의 모든 권고한 성읍이 점령당했다(왕하 18:3). 뇌물도 소용이 없었다.

3. 산헤립의 침공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물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3-4)과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5) 하나님의 신뢰하게 하는 것(6-8)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막았다는 것은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성 안으로 끌어들었다. 장기전을 대비한 것이다.

4.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무슨 외성까지 쌓았을까?

작은 성이니 외성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다. 실로암 못 바깥과 기혼 샘을 둘러싸는 작은 외성이 있었다.

5.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앙적인 말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도와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히스기야를 도와준 선지자가 누구일까?

이사야(20, 사 37:5-7):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임마누엘'이다(사 7:14). 히스기야도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음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라는 표현이다.

6. 예루살렘에서 방비가 한창일 때 산헤립은 라기스를 공략하고 있었다. 라기스 공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며 전략적 요충지다. 예루살렘의 배후를 먼저 친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서 산헤립이 라기스 점령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7. 산헤립이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이 무엇인가?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는 것(12): 여러 곳의 산당들을 제거한 것이 산헤립의 눈에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 곳곳에 신전이나 우상을 세우는 것임을 감안해보면 산헤립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들도 어쩌면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는 왜곡된 여호와 신앙이었을 것이다. 특히 느후스단이 그렇다.

8. 산헤립이 여호와를 우습게 아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어떤 신도 자기들의 신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13-15):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여호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려는 것인데 그것도 모른 채 이런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만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쑥대밭이 된 것을 알 리가 없지!

9. 산헤립은 편지쓰기를 좋아했나 왜 또 편지를 보냈는가?

급했기 때문일 것: 신하들에게 맡겨놓고 느긋하게 라기스에 머물러 있을 형편이 못 되었던 모양이다. 구스 왕 디르하가의 공격이(왕하 19:9) 예상되었을 수도 있다.

10. 산헤립의 신하가 왜 유다 방언으로 소리를 지를까?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인데 당연히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한다. 산헤립의 신하란 이런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통역자인 셈이다.

11. 하나님 비방하기를 어떻게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비방할 수가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우상일 뿐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못한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죽어봐야 알지!

12. 산헤립의 실록에 의하면 그가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도시를 함락하였고, 유다 지역에 46개의 요새와 도시들을 정복하고 200,150명을 포로로 잡아 왔다고 한다.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같이 가두었다고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다. 왜 성경의 기록과 이렇게 다를까?

아마도 1차 침공 때(BC 701)에 큰 전과를 올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떠벌려 놓았을 것이다. 후에 다시 2차 원정에 나섰다가 본문의 일을 당했을 것이다. 왕하 19장에 보면 군사 185,000을 잃어버리고 돌아갔으니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것, 그 후에 자식들에게 암살당했다.

13. 유다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다. 솔로몬과 웃시야 시절에 그런 적이 있다. 히스기야에게는 왜 외교사절들이 찾아 왔을까?

당대의 최강국 앗수르를 물리쳤으니 이제는 유다가 최강이다. 유다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앗수르를 막아주었으니 감사하기도 했을 것이다.

14. 엄청난 시련을 딛고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만하여짐(25): 사람이 어찌 이럴까? 그래도 멀리 가지 않고 곧 돌아섰으니(26) 다행이다.

15.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부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일까?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복이 그렇게 큰 복이 아닐텐데?

기복신앙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이 물질에는 관심을 쏟는 것이다.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의 복이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일이며,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후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마 6:33).

16. 물을 끌어들이는 일이 무엇이길래 히스기야가 엄청난 복을 받은 기록에 덧붙여 놓았을까?

전쟁을 대비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포위되었을 경우 살아남기 위한 대책이며 적으로 하여금 물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520m에 이르는 바위터널이다.

17. 엄청난 부나 권력을 누리게 되면 사람은 변한다. 아무리 히스기야지만 변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시험하신다(31): 징계를 위함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8. 히스기야의 행적이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사야 36-39장과 왕하 18:9-20:19의 내용은 동일하다. 산헤립이 침공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생명이 15년 연장된 그 사건 말이다.

19.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서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은 정중하게 장례를 치렀다. 드나셋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아 이런 불행이다! 왜 그런가?

이사야를 죽였을 뿐 아니라 유다를 멸망당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역대하 33 장

1. 아버지 히스기야는 29년 통치했지만 기록이 아주 상세하다. 반면에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했음에도 기록은 참으로 간결하다. 무슨 차이인가?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차라리 지우고 싶은 기록이기 때문이다.

2.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으로 소개되고 소개가 끝나자마나 이제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인가? 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히스기야: 자신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탓이다.

3. 므낫세가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니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뒤에 태어난 아이다. 히스기야의 목숨이 연장 되어 가장 악독한 왕이 태어났으니 죽어야 될 인간이 죽지 않은 탓인가?

은혜에 감사해서 아이를 잘 가르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어야 한다. 자녀교육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해야 한다. 특히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일 말이다.

4. 우상숭배도 뿌리가 깊은 잡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뿌리가 빠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므낫세는 왜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웠을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12살에 왕이 되었으니 아마도 신하들이 바람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신하들은 히스기야 밑에서 충성하던 사람들일 텐데... 아이고 머리아! 여하튼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책임이다.

5. 우상을 세울 때가 그리도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다 세워(4, 5, 7)?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반항이다. 반항이라면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 있는데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것을 보면(9) 아무래도 후자같아 보인다. 신앙적이었던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반항적일까? 신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다.

6.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을 묘사하는 6절이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은가?

신 18:10-11에서 금하신 내용이다: 므낫세가 신명기 말씀을 알고 청개구리 모양으로 한 것일까?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7. 므낫세의 악행을 말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에게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시키는 의도는 이런 악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다는 뜻이다. 무효화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7)과 그들이 그 땅에서 옮김을 당하지 않을 것(8)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실 것이고 주민들은 타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8.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11) 하나님을 아는가?

안타깝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너무도 많다.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9. 포로로 잡혀간 왕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흔치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단순한 군사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된 일이라는 것을 므낫세가 제대로 깨달았다는 의미다.

10. 회개하고 돌아와서 왜 성읍을 견고하게 했을까?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앗수르 왕의 호의가 없이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럼에도 다시 견고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것은 앗수르의 침공을 예상하고 있으니... 앗수르 왕에게 협조하는 척하고 살아서 돌아온 모양이다.

11.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통치기간 55년 중 대략 재위 47년 때의 일이다(BC 650년 경). 돌아온 므낫세가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데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거의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말년에 포로에서 돌아와 갑자기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니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다. 본인은 혼이 나고 회개를 했더라도 평생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다.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야 때에야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사울이 회심한다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동시에 회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가령, 주지스님이 그렇게 회심했다고 쳐도 마찬가지다.

12. 열왕기에 따르면 유다 멸망의 주범은 므낫세다(왕하 21:11-15). 역대기에서는 이런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 어디에 관심을 보이는가?

므낫세의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리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몬의 통치와 비교하면서도 므낫세의 스스로 겸손하였던 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면 므낫세의 회개를 중요하게 다루는 셈이다.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고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다.

13. 유다에서는 쿠데타가 드물다. 쿠데타를 일으켜보아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대하 24:25-26,

요아스, 대하 25:27, 아마샤). 아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왕을 죽여도 왕조가 바뀌지 않는 이 기묘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삼하 7:13) 소용없는 반역을 왜 저지를까? 주로 종교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므낫세 시절에는 거의 앗수르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으므로 종교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앗수르파와 애굽파, 혹은 독립파)와 맞물려 있었을 것이다.

14. 아몬이 24세에 죽임을 당했다면 그의 아들은 도대체 몇 살에 왕이 되었단 말인가?

8세(34:1) 아몬이 15세에 장가를 갔다는 얘긴데, 이래서야 철이 제대로 들겠나? 배워야 할 시기에는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할 시기에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 제대로 인 간이 되지를 않는다.

역대하 34 장

1. 8세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까?

이 표현은 그가 통치한 전 기간을 종합한 표현이다: 어릴 적에는 므낫세와 아몬 시절의 아픔을 하는 이가 후권인으로 있었을 것이다. 왕이 된지 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니 그 전에는 누군가 후권인 노릇을 했겠다.

2. 유다의 왕이 걸을 수 있는 길은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다윗의 길(2)이다.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왕상 16:2): 다윗의 길은 사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패망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은 무수하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뿐이다.

3. 재위 팔년이면 16살인데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20살(재위 12년, 앗수르 왕 앗술바니팔이 죽던 해)에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우상을 그냥 제거하면 뭘텐데... 얼마나 지독한가?

우상을 제거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모조리 다 찍고, 뺏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기까지 했다. 철저한 개혁이었던 셈이다. 요시야 재위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렘 1:2),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개혁을 많이 뒷받침했을 것이다. 스바냐도 동시대 사람이었으니 어떻게든 도왔을 것이다(습 1:1).

4. 요시야가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른(5, 왕하 23:16-18) 일은 오래 전에 예언된 것이다. 무슨 일로 이런 예언이 나왔던가?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외치던 말(왕상 13:1-2): 그런 다음 물도 떡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거역했다고 역물(?)하게 죽은 선지자의 사건 말이다.

5. 요시야의 개혁이 전국, 도농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시행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음(6):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중앙부, 시므온은 최남단, 납달리는 북단이니 전국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면 온전한 성읍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6. 3·4절과 7절은 중복 아닌가?

3·4절은 유다지역을 말하는 것 같고 7절은 이미 망해버린 북 이스라엘 지역의 우상을 척결한 것처럼 보인다. 재위 12년에 앗수르 왕 앗술바니팔이 죽었다. 이 틈을 타서 앗수르의 영지였던 옛 북이스라엘 지역을 회복한 모양이다.

7.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데 몇 년 걸렸는가?

7년: 재위 12년에 시작한 개혁이(3) 18년에 마쳤으니(8) 므낫세나 아몬의 통치를 거치면서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했었는지 알만하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남았다.

8. 여호와와의 전을 수리할 돈은 누가 헌금한 것인가?

전 국민: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란다(9)

9. 당시에는 헌금을 드리는 방식이 오늘 우리와는 좀 달랐던 모양이다. 누가 헌금을 거두었는가?

문지기(9): 성전에 들어올 때 거두었으니 헌금이라기보다는 성전세인 셈이다. 하긴 오늘 우리와 같은 방식의 예배가 없었으니!

10. 어느 유다왕이 성전을 헐었는가?

우상숭배가 극심해도 성전을 헐지는 않았다.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건물이 퇴락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전을 헐 죄에 해당한다. 므낫세가 통치기간이 50년이 넘는데 제대로 성전을 관리하지 않았으면 돌보마져 새로 만들어야 할 상황일 수도 있겠다.

11. 헌금을 때낼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면(14) 헌금케 안에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다는 말인가?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헌금케와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다(왕하 22:8-10): 가령, 헌금한 돈을 때내기 위해서 헌금케를 엮었을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있었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었거나. 율법책을 이렇게 숨겨야 했던 시절도 있었고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헌금케를 살펴볼 필요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말이다.

12.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왜 옷을 찢었을까?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까?

말씀을 듣다가 추측컨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배반하는 경우에 임할 저주의 말씀(가령, 신 28장이나, 레 26장)을 들으면서 이렇게 애통한 것 아닐까? 이런 게 진짜 은혜다.

13.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물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심판이 지연되기는 하겠지만(28) 피할 수 없다(21, 24-25). 그럼에도 요시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말씀을 준수하도록 인도했다(28-33).

14.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있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렘 1:1)으로 요즘 말로 촌사람이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다(습 1:1). 홀다는 왕궁의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으니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덜 유명했던 예레미야나 스바냐를 더 잘 알까?

글을 남겨야 후대에 유명해진다. 글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위대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소개하는 글을 남기지 못하면 명성이 짧다.

15. 왕을 가리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이런 어투가 선지자적인 어투일지도 모르겠다: 선지자가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어투가 아닐까? 자신의 이기적인 권위를 내세우려는 사람이 보면 정말 반가워하겠다.

16. 사반이 왕에게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24절: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과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은 같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사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한 부분을 읽어 주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신 28:15-68과 레 26:16-19이다.

17.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25절). 결국은 하나이지만.

1) 하나님을 버리고, 2) 우상을 섬기고, 3) 악을 행함(=손의 모든 소위) 하나님을 버리면 그 다음이야 자명한 길이다.

18. 홀다는 답변을 두 번 한 것 같다. 24-25과 26-28은 각각 누구를 향한 답변인가?

24-25: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 유다의 대표자로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유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 범죄한 주체가 17절에서 보듯이 '이 백성'이다.

26-28: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 개인으로서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상이 '네, 너'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는 않지만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19.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 전쟁터에서 죽었는데(35:22-25)?

늘어서 죽으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꼴을 보거나 당하지는 않으리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노가 쏟아지는 장면을 보지 않으리라는 뜻이다.

20. 요시야는 지금까지 우상들을 타파하고 우상의 흔적을 지우고 성전을 개축하는 일을 해왔다. 그만하면 종교개혁을 다 이룬 것 아닐까?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다(30-32)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을 대로 살도록 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21. 요시야가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게 만든 부분은 분명히 회개와 저주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거기서 한 발짝 더 전진하려면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31) 신명기 말씀이네(신 6:5, 4:1-8)!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에 비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그냥 준비과정에 불과하다(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일 뿐 방향을 틀었으면 그 방향으로 전진해야지! 아쉽지만 요시야가 이 일에 더 헌신해야 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22. 30절과 32절은 공개적인 행사다. 그러면 31절은 개인적인 일일까?

공개적인 행사다: 왕이 자기 처소에 있다는 말이 약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왕이 서야 할 자리, 연단 같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왕하 23:3).

23. 요시야가 사는 날에(33)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였더라! 좋은 말인가?

좋은 말이지만 안타깝다: 왜 그가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변해야 하는가? 죽은 후에도 신앙적인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수 24:31),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삿 2:18), 기드온이 사는 사십년 동안(삿 8:28),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삼상 7:13),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왕상 4:25),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대하 24:2), 스가랴가 사는 날에(대하 26:5) ... 다음 세대에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인가!

역대하 35장

1. 유월절을 지키던 첫째 달 열넷째 날이 본래는 무슨 날이었던가?

출애굽 1-1 Day: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하면 어딘지 긴장감이 떨어지는 듯하다. 이럴 땐 군대용어가 더 실감이 난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날, 이스라엘은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날이다. 그게 유월절의 유래다.

2. 거룩한 궤를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메지 말라는 것은(3)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 왔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 전에는 궤를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다는 말인데?

므낫세나 아론의 시절에 법궤마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 아닐까? 일반적으로 언약궤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누군가가 감추었다는 말이다. 얼마 후의 일이다. 그와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요시야가 아무리 선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을 함부로 고칠 수 있나?

고쳤다고보다는 직분의 발전이라고 해야겠다: 이제는 메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폐지라기보다는 발전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대학을 마친 사람이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 상황이 변한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시야의 명령은 이전과 다른 점이 더러 보인다. 궤를 메지 말라는 것 외에도 유월절 규정이 조금 달라 보이는 점이 무엇인가?

유월절 양을 레위인들이 잡은 것(6): 각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키려다보니 레위인들이 양을 잡은 것 아닐까? (참고, 30:16-18)

5. 모세의 글이라면 모세오경을 가리킨다.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은(4) 뭘까? 시편?

여기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다(8:14). 이 행사에 레위인들이 가장 바빴다(14).

6. 기꺼이 유월절 재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부류의 지도자들: 왕이 제일 먼저 냈더니, 방백들도 따르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뒤를 따랐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인 셈이다. 그것도 즐거이(8)!

7.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 고(12) 나면 불에 굽거나 삶는 유월절 양(13)은 또 뭘까?

여호와께 드린 것은 기름과 내장이었을 것이다(예 3:9-11): 원래 유월절 양은 남김없이 먹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각 가정에서 드리던 유월절 제사가 민족적인 행사가 되면서 화목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변모된 것 같다. 화목제는 기름과 내장은 번제로 드리고 살코기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어 먹었다.

8. 유월절 양은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삶았다(13). 나머지 성물은 아마도 염소나 수소일 것이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

원래 유월절에는 양을 반드시 구워먹었다(출 12:8-9, 신 16:7). 삶은 고기는 바로 이어지는 잔치(무교절)에 쓰인 것 아닐까?

9.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레위인들이 가장 바빴던 모양이다. 다른 직무를 맡은 레위의 형제들이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레위인들의 수고 덕분에(14)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들도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 있었다(15). 형제들이 바쁘다고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 해서 다른 사람의 직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가 소임을 다 잘 감당함으로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었다.

10.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도 그랬을까?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의 경우에는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게 지켰지만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다윗 시절에는 성전조차 없었으니 말할 것도 없다. 유월절을 지킨 기록만 본다면 참석자의 수나 제물의 수로는 요시야 때에 가장 큰 행사였던 모양이다.

11. 요시야 재위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단다. 이 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종교개혁을 마무리 한 해(34:8):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이자 마무리인 셈이다. 우상을 척결과 성전 수리를 마무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해이다(참고, 왕하 22:8, 23:21-23).

12. 갈그미스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다는데 왜 요시야가 방비하려고 하지?

갈그미스는 시리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관문으로 쇠약해가던 앗수르의 마지막 보루였다. 바로 강 건너 하란과 대치되는 곳이다. 애굽의 바로가 이곳까지 싸우려 한 것은 앗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대전을 치르려는 것이다(주전 609-605). 바벨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앗수르는 패망, 애굽은 이 지역에서 밀려났다. 요시야가 이런 바로를 막으려고 한 것은 친바벨론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그도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요새로 바로의 군대가 지나가려는 길목이다.

13.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자칭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한 대적이 한 둘이 아니다. 앗수르

왕도 그랬다(사 36:10 = 왕하 18:25 = 대하 35:21). 더구나 느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 아니다. 유다의 멸망에 깊이 관여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고레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감동시킨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고레스는 메시아라고 불려지기까지 했을 만큼(사 45:1)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왕이다. 느고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14. 요시야는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요시야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기의 영내를 통과해서 다른 나라를 치러가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속국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느고에 맞서 싸운 것은 친바벨론 정책을 편 외교적 판단 착오일지는 모르나 통치권자로서 잘못된 일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마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도와주셨더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뜻을 정하신지 오래다(대하 34:22-28, 왕하 23:26, 24:3-4). 신앙생활만 잘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슬픈 현실이지만 신흥강대국 바벨론과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이 다투는 사이에서 제대로 국력을 기르지 못한 유다의 현실을 고려했어야 옳다.

15. 요시야 왕의 죽음이 특별히 슬픈 이유를 대하 32:25-26, 34:22-28, 왕하 23:26, 24:3-4절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미루어둔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도 요시야가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방패막이마저 사라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끝이다. 요시야의 선함마저 극복할 수 없던 선조들의 악함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역대하 36 장

1. 요시야를 죽게 만든 느고가 3개월 후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바벨론과 싸우려고 므깃도를 지나서 갈 그미스로 갔던 느고가 유다를 침공한 이유가 뭘까?

패심죄: 왕하 23:33에 보면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살룸)를 하맛 땅 립나(리블라)에 가두었다고 한다. 바벨론과 싸우는 도중에 일부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한 모양이다. 나중에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돌아갈 때 그를 애굽까지 끌고 갔다. 요시야의 친바벨론 정책을 이어받은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조공도 아닌 벌금을 받았다. 겨우 3개월 왕노릇 했는데 무슨 악한 짓을 그리 많이 했을까? 요시야시대에 드러나지 않았던 백성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말 아닐까?

2. 애굽 왕이 침공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웠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더니 이름을 바꾸란다. 엘리야김이 순종하기는 했는데 잘 보면 반항이다. 왜 그럴까?

엘리아(야)김의 이름 뜻(하나님께서 세우심)은 여호야김(여호와께서 세우심)과 똑같다. '엘'은 하나님이고 '여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말이니가. 일제시대 때 개명에 반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본 이름을 쓴 사람 중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자기 이름을 삼은 사람도 있었다더라.

3.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4) 뒤를 이은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6).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인가?

예견된 일이다(대하 32:25-26, 34:22-28, 왕하 23:26, 24:3-4). 차라리 요시야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고 일찍 죽은 것이 복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애굽과 바벨론의 해게모니 다툼에 희생에 당한 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선지자가 수도 없이 외쳤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개인이든 나라든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4. 여호와를 배반한 탓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왕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에 바쁘다. 요시야 이후 당사자 네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촌수관계를 따져보자!

여호아하스(36:1), 여호야김(36:4), 여호야긴(36:8), 시드기야(36:10)인데 한결같이 악했다. 여호야긴(여호야김의 아들)만 제외하고 세 사람은 형제로,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러니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어도 유다의 멸망을 멈출 수 없었다! 끝없이 인내하시던 하나님(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에서)께서 드디어 유다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기로 하시니(24:3)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5. 유다는 바벨론이 한 번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3차 걸친 침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된다. 본문을 1, 2, 3차 침공으로 구분해 보자.

6절: 1차 침공(여호야김 4년, BC605)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편 탓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인질로 잡혀갔다. (여호야김은 사로잡혔으나 도중에 놓여난 것으로 추정함)

10절: 2차 침공(BC597, 여호야긴 3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풀려난) 여호야김이 또 친애굽 정책을 시도한 탓이다. 에스겔, 모르드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 1차 침공 이후 여호야김이 왕이 되기까지는 여호야김이 왕노릇했다(왕하 24:1).

17-20절: 3차 침공(BC586,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가 친 애굽 정책을 편 탓이다. 1, 2차 때는 사로잡아가고 보물을 빼앗는 정도이었지만 3차 때는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17-19).

열강의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애굽과 바벨론의 눈치만 살피다 끝내 이렇게 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라니까!

6. 1차 침공은 여호야김 4년에 있었는데 2차 침공은 8년 후의 일이다. 이 때는 여호야긴 3월이다. 그러면 중간에 8년 정도는 누가 왕이었는데?

여호야김은 사로잡혔으나 도중에 놓여난 것으로 추정함: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제 각각이다(대하 36:6-12, 왕하 24:6, 렘 22:19).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군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까지 함락하였다. 여호야김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였는데(대하 36:6-12) 갑자기 부친의 사망소식이 들려 급히 귀환하면서 여호야김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받고 풀어주었을 것이다. 주전 601년에 이집트가 득세하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다(왕하 24:1).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출전하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 여호야김을 죽이고(렘 22:19) 아들 여호야긴을 왕위에 올린다. 경건한 사람들이 여호야김을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주었을 것이다(왕하 24:6).

7.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와 전 기구를 자기 신당에 갖다 둔 이유가 뭘까?

자기는 승리한 기념품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보관해주는 것이다(스 1:7-11).

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10).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위는 시드기야로 이어지는가?

메시아의 계보는 여호야긴으로 이어진다: 마 1장의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다(대상 3:16, 렘 37:1의 고니야). 잡혀갔지만 나중에 놓여나서 왕으로 대접을 받았다(왕하 25:27-30).

9. 유다의 멸망은 느닷없는 악행이 결정적인 것이었다(왕하 24:3-4). 요시야의 개혁도 대세를 돌려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완전 파멸에 이르지 않는 방법은 없었을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든지(12)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말이라도 들든지(13):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외쳤다(렘 38:17-23). 시드기야는 이 경고마저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완전 파멸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패망의 모습을 에스겔도 몸으로 보여주었다(겔 12:1-16). 결국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마저 듣지 않았다. 최후에 남았던 무리들마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버렸다(렘 43:4-7). 아무리 참고 참아도(15) 하나님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10.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은 망해버렸지 않은가?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

아직 끝이 아니다: 끝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또 다시 인내하시며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신다.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신 그 일이 여전히 계속된다.

11. 유다가 망해버린 이유를 21절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

안식년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셈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렘 25:11, 29:10) 되었지만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레 26:34).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탓이다(레 26:14-15).

12.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25:11, 29:10). 바사의 고레스가 그걸 어떻게 알고?

고레스는 자기 나름의 통치철학을 가지고 통치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다(사 44:28, 45:1-4).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유다가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른다. 진짜 메시아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예언을 하시는 셈이다.

13.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패망사인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는 명백히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역대기도 다시 회복될 희망이 보인다. 이스라엘의 패망사가 아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